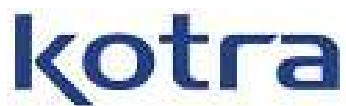


독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정치사회동향 /2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8
- 2. 주요 산업 동향 /10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2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5
 - 대한수입규제동향 /25
 - 관세제도 /27
 - 주요인증제도 /29
 - 지적재산권 /34
 - 통관운송 /3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2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5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4
- 진출형태별 절차 /57
- 투자입지여건 / 6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7
- 조세제도 /7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6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77
- 2. 물가정보 /81
- 3. 바이어발굴 /82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85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7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9
- 7. 이주정착 가이드 / 92
- 8. 출장가이드 /99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MAP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현지어명: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부 유럽
면 적	357,022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 후	온대성, 연평균 섭씨 7-10도 수준
수 도	베를린 (Berlin)
인 구	○ 8,225만 명 (2007년 7월 기준) - 외국인 비중: 8.2%(2007. 11월 기준 연방통계청 발표 최근 수치임)
주요도시	Berlin (340만 명), Hamburg (174만 명), Muenchen (126만 명)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개신교 (33.2%), 카톨릭 (32.8%), 기타 (34%)
건국일(통일기념일)	1871.10.3일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 대통령 Koehler - 국가원수/ 취임일: 2004. 7. 1, 임기: 5년 ○ 수상 Angela Merkel - 실권자/ 취임일: 2005. 11. 22, 임기: 4년

나. 2007년 경제지표

GDP	○ 2006: 23,027억 유로 ○ 2007년 예상치: 24,226억 유로
1인당 GDP	약 29,400 유로
실질경제성장률	○ 2006: 2.5% ○ 2007 예상치: 2.8%
실 업 률	9.0% (2007년 12월 기준)
물가상승률	2.1%
화폐단위	유로(Euro)
환율	1 유로 = 약 1,350 원
총 설비투자	4,102.8억 유로
국내 총 소비	17,733.8억 유로
교역규모	10,343.1억 유로(수출), 9,202억 유로(수입) (상품 및 서비스포함)
주요 교역품	○ 수출: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및 전기, 의약품, 화학제품 ○ 수입: 전자 및 전기, 자동차/부품, 원유, 식품, 천연가스, 의류

다. 한-독 관계

체결협정	1883.11.26 통상.우호항해 조약 체결 1901. 8.31 민철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55.12. 1 외교관계 재개 1958. 8. 1 주독 대사관 설치 1958. 8.22 손원일 초대 주독대사 부임 1958.10.10 Richard Hertz 초대 주한대사 부임 2005. 6.24 이수혁 대사(18대) 신임장 제정 2006. 9 Norbert Baas 대사(제12대) 신임장 제정
교역규모	○ 2005년 - 103억불(우리나라 수출) - 97억 7천만불(수입) ○ 2006년 - 100억 6천만불(우리나라 수출) - 113억 6천만불(수입) ○ 2007년 11월 기준 - 103억 8천만불 (우리나라 수출) - 122억 7천만불 (수입)
교역품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금속공작기기 등(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요소, 반도체,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 분석기, 기타 화학 공업 제품, 기타 기계류 등 (우리나라 수입)
교민	총 교민 수 약 28,500여 명 (독일 국적 취득자 6,800여 명)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청, 독일 연방 은행, 독일 연방 정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독일의 대외 정책 기초

- 유럽통합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양안의 협력체제의 강화
- UN, OECD등 국제기구의 위상 제고 추진
- 인권 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 구축
- 러시아, 동구권 국가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

통일의 결과로 독일의 대외정책 상 제약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독일의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 되었는바, 경제에 이어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구주통합 추진과 구주방위 및 대동구권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EU, G7 등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외교적 전기를 마련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대서양 협조체제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개혁 촉구 및 안보를 위한 지원, 구동구권 군소국가들과의 긴밀한 접촉 및 적절한 지원 등에 힘쓰는 동.서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교노선은 EU(European Union),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 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은, 독일이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중.동구 국가들의 EU, WEU, NA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중.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외교적 역할 강화는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 및 영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하는 등 향후 유럽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 동남아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 서남아 지역의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참가 및 ASEM, APEC, ARF 등 다자협력체를 통해 독일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에 큰 관심이 있으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문제가 독일 외교에서 중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교 목표로는 UN(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을 들 수 있다. 2003년 1월부터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독일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온갖 외교전을 펼친 끝에 어느 정도 지지세력을 잠정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공동전선을 펴온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

나. 현 정부와 대외 정책

현 정부의 구성은, 지난 9.18 총선에서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메르켈 기민당수를 총리로 양당간 8:8로 각료직을 배분하는 독일역사상 2번째의 대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11월 22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다.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정부는 재정적자 감소 및 경제활성화와 실업해소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조세, 연금, 의료보험, 연방제 개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초기 외교적인 성과와 독일경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으며, 개혁정책 추진의 결과로 이어지는 독일의 경기 호황으로 높은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2007년 상반기 EU의장국 및 2007년 G-8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컨대,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EU 헌법조약에 관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관료주의 타파, 테러 및 불법 이민 대처를 위한 내무/사법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G-8 의장국으로서는 '성장과 책임'을 내걸고 반테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확보, 기후변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수의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큰 불상사 없이 정상회담을 주최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 등 한반도 주요문제와 관련, 각종 계기마다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으며, 특히 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입장 지원 등 한·독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KEDO에 개별국 차원에서 100만불을 기여하였고, EU 차원의 기여에도 적극 참여
- 96.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및 침범시 독일정부는 우방국가중 제일 먼저 대북한 경고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동월 한·미 정상회담시 발표된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즉각 지지 성명 발표
- 96.10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 및 EU 의장국 성명 발표시 적극 협력
- 99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시 99.3 북한 문제관련 EU 의장국 성명 채택 및 99.5 동성명의 유엔안보리 문서 배포
- 2000.6 독일 정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환영 성명 발표
- 2001.7 독일연방하원,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문 채택
- 2004.1 독일연방하원, 한독 수교 120주년 기념 결의문("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발전")채택
- 2005.2 독일 정부, 북한 핵보유 및 6자 회담 불참선언시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6자 회담 복귀 촉구
- 2006.10 독일 정부, 북한 핵실험후 즉각적 핵무기·미사일 폐기 및 6자회담 복귀 촉구 성명 발표

(자료원: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정부 관련 이슈

양국 외무부간 협의 채널로, 제1차 한·독 정책협의회(81.10.21)가 본에서 개최된 이래 양국 수도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래 민간 차원에서 양국간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한-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한·독 협회와 독일의 독한 포럼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다.

- 2002년 6월 Rau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창설
- 2003년 6월 베를린에서 제2차 포럼 개최
- 2004년 10월 제주도에서 제3차 포럼 개최
- 2005년 6월 함부르크에서 제4차 포럼 개최

- 2006년 10월 서울에서 제5차 포럼 개최
- 2007년 10월 뮌헨에서 제6차 포럼 개최
 - 한독협회 (회장 최정호), 독한포럼위원회 (위원장 Hartmut Koschyk)
 - 안건: 양국 외교안보, 경제통상 (FTA)

한-독 협정 체결 현황

-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1961.12.13),
- 한·독 투자보장 협정(1964.2.4),
- 한·독 무역 협정(1965.4.9),
-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66.9.29),
- 한·독 문화 협정(1970.5.16),
- 한·독 사증면제 협정(1972.11.17),
- 한·독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6.12.14),
- 한·독간 투자보장 협정(1977.12.28),
- 한·독 정부간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각서 교환(1981.4.17),
- 한·독 정부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1982.9.22),
- 한·독 정부간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 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1985.4.30),
-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1986.4.11),
-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1986.4.11),
- 한·독 정부간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1986.10.10),
- 한·독 "기술협력협정" 시행 약정(1989.1.6 발효),
- 한·독 항공운수 협정(1998.7.19 발효),
-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개정)(2002.10.31 발효),
- 한·독 사회보장 협정(2003.1.1 발효),
-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2005.1.1 발효)

나. 과학기술협력 관련 이슈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해 2002년 11월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 (BMBF)와 한·독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협의하였으며, 2003년 제1차 위원회가 본에서 개최되었다.

1) 2003년 12월 본에서 제1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의제: 항공우주, 핵융합, 나노기술, 환경기술 분야 협력, 이공계 대학교육협력 등
- 2004년 10월 서울에서 제2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의제: 연료전지, 신약개발, 나노기술, 환경분야 협력, 2005년 한국의 해 행사 지원등

2) 2005년 9월 베를린에서 제3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 의제
 - 연료 전지, IT, 핵 융합, Robotics, Neuroscience, Nanophotonics, 환경 분야 협력, 저명 과학자 초청, 과학자 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

3) 2006년 10월 서울에서 제4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주요 의제
 - 연료 전지 지하수 자원, 열 핵융합, 에너지화 가능 신물질, 해양과 극지 연구 분야 협력, 저명 과학자 초청,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등

2007년 10월 4일 - 6일기간에는 서울에서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분야의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제 11차 독일 경제 아태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미하엘 글로스 독일 연방 경제 기술부 장관을 비롯 독일아시아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아태위원회(APA), 독일 기업체 등 약 5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하여 한-독 간 기술연구협력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문화교류 관련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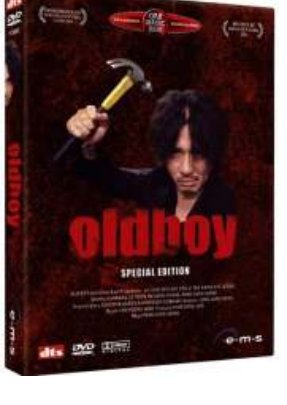
1970년 8월 16일 체결된 한. 독 문화협정에 근거하여 양국간 문화관계 협력 강화 및 양 국민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독 문화공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75년 3월 본에서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 이래 매 2~3년마다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으며, 2004년 9월 제9차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한. 독 양국은 제9차 한. 독 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되고 2005년 베를린 아-태주간 행사에서 포커스국가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정하고 다각적인 문화, 경제교류 행사를 개최기로 합의, 2005년 다양한 문화 및 경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6년 3월 문화 홍보원이 문화원으로 개편되면서 한. 독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들어서 Axel Springer사, SAT1 등 독일 대형미디어 그룹의 국내 온라인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8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게임 컨퍼런스에서 국내 우수 온라인 개발 업체와 독일 미디어 그룹 간의 수출/투자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콘솔 게임이 강세인 독일에서는 향후 온라인 게임의 선진국인 한국과의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영화가 유럽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독일 영화시장의 상영관 진출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개봉된 한국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마리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리고 이광호 감독의 <천년호> 등 4편이다.

독일의 DVD 판매 및 대여시장에 진출한 한국영화

한국 영화명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독일 영화명	Lady Vengeance	Sympathy For Mr. Vengeance	Oldboy
			
상영·판매시기	2007년 1월	2003년 2월	2004년 9월
한국 영화명	오로라공주	6월의 일기	공동경비구역 JSA
독일 영화명	Princess Aurora	Bystanders	Joint Security Area
			
상영·판매시기	2006년	2005년	2002년 7월

라. 경제 통상 관련 이슈

2005년 아태주간 행사(Asia-Pazifik Woche)에서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선정되었다. 아태주간 행사는 베를린에서 격년으로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경제 및 문화 소개 행사이다. 2005년 9월 이 행사에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초청되었다. 이 외에도 2005년은 ‘한국의 해’로 4월 산자부 장관은 30여 개의 중소기업 소위 ‘테크노 캐러반’을 이끌고 베를린을 방문하여, 한·독 중소기업간의 활발한 기술수출입, 합작투자, OEM, 전략적 제휴, 제품수출, 공동연구개발 등 관련 상거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삼아, 한국의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DMB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원헌의 ‘디지털 코리아 데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구촌 축제를 한국 제품 마케팅에 심분 활용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7년 7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 또한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EU 수입 관세인 10%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업체가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독일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각각 1위 및 2위의 수출 품목인 점을 고려할 때, FTA 체결 시 국내 독일 자동차업체의 점유율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한국의 5대 수출대상국(유럽 중 1위)이며, 최근 수출호조로 한국의 수출에서 독일 비중이 증가 추세이다. 2007년 11월 기준, 對 독일 주요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순위다. 독일은 한국의 5대 수입국 (유럽 중 1위)이며, 2007년 11월 기준, 對 독일 주요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반도체. 원동기 순으로 기계 및 기계부품 분야가 주를 이룬다.

(자료원: 주독 한국대사관, 무역관 자체 조사)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7년 독일 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2007년에도 독일 경제는 2006년의 경제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초 부가세 인상, 원유값 상승, 유로화 강세, 재정정책 축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기 호황은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덕분에 더 이상 외향적인 요인에 휘청이지 않고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경제가 2007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2008년에는 다소 둔화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추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화 강세 원유 값 상승, 물가상승률,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및 금융시장 리스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설비 투자, 민간소비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수출입동향

독일 수출은 2007년 상반기에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해외수요 증가로 인하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 유럽 수출이 평균 8.4% 성장한 반면 독일 총수출의 8%이나 차지하고 있는 대 미국 수출은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저조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경기호황으로 인하여 대 중국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상반기에는 미국 소비 둔화, 유로화 강세로 인하여 수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기 상승으로 인하여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수출성장률은 7.8%, 2008년 수출성장률은 6.5%를 기록할 것으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 발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하고 있다.

독일 수입 또한 2007년 상반기 중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8년에는 수출보다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 회복 및 기업 설비 투자 확대가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민간 소비의 눈에 띄는 증가가 수입 확대에 이어질 것이다. 2007년에 수입증가율이 6.0%에 그치는 반면 2008년에는 6.9%를 기록 할 전망이다.

다. 민간소비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006년 하반기 중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부가세 인상을 앞두고 구매를 앞당겨 실시하였으나 2007년 들어 민간소비는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부가세 및 보험료세 인상으로 민간소비는 예상한대로 1/4분기 중 크게 둔화된 한편 민간 저축률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자동차, 가구 등 고가 소비재 구매가 대폭 줄어든 반면 신발, 의류와 같은 소비재 구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부가세 인상 영향, 유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률 감소, 임금상승 등과 상쇄되어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로 2007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상반기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0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에는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 임금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1.9% 증가할 것으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예측하고 있다.

라. 설비 및 건설 투자

기업들은 2007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높은 자기자본, 특히 해외매출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및 높은 공장 가동률로 기업들은 생산시설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가 9월부로 도입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상용차 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용차 신규등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200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세계증시 불안 등으로 설비투자는 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2007년 초에도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하여 지속 성장하였으나 2/4 분기에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독일 건설 경기는 2007년 2.0%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8년에 1.5%로 다소 둔화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부가세 인상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 고용시장

2006년부터 시작된 고용시장 확대가 2007년에도 지속되었다. 2007년 1-8월 중 고용자수가 44.8만명이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초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하여 관련 업계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는 고용자수가 월 2.6만명 늘어났 으며 8월에는 고용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무려 63.8만명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실업자수는 2007년 1-8월 중 33.5만명이 줄어들었으며 노동력 수요 급증으로 특히 장기실업자들이 고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장기실업자수가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7.6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고용자수가 총 68.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도 고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출품목 및 설비투자 품목을 생산하는 업계에서 노동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둔화로 인하여 2008년에 고용자수는 20만명 늘어나는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07년 8.7%에서 2008년 7.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물가상승률

2007년 중 물가가 부가세 인상 (16→19%),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주에서는 학비를 도입함으로써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또한 주별 전기세 인상, 식품 가격 상승,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유로화 강세, 임금단가 동결이 물가상승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1-8월 물가상승률은 2.0%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9월부터는 에너지 가격 상승, 독일 철도청 철도 운항료 인상 영향으로 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물가상승률은 2.1%, 2008년에는 2.0%를 기록할 것이다.

독일, 주요 경제지표 성장 전망

(단위: 성장률 %)

	2005	2006*	2007*	2008*
GDP	0.8	2.9	2.6	2.2
민간소비	-0.1	1.0	-0.1	1.9
설비투자	6.0	8.3	10.1	5.0
건설투자	-3.1	4.3	2.0	1.5
수출	7.1	12.5	7.8	6.5
수입	6.7	11.2	6.0	6.9
경상수지(십억 유로)	-75.6	-37.6	2.2	8.4
실업률(%)	11.1	10.3	8.7	7.9
인플레이션(%)	2.0	1.7	2.1	2.0

자료원: Eurostat, 독일 통계청, 독일 연방노동청, IFO 연구소 전망

주: * Ifo 연구소 전망치(2007년 12월 14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임)

2. 주요 산업 동향

가. 독일 산업구조 개관

독일은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High-Tech 분야에 강하다. 또한 독일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산업의 경우 2005년도 수출비중이 73%, 자동차산업의 경우 70.9%, 화학산업 68.5%,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4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독일 총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8,960억 유로로 4년 연속 수출 세계 1위자리를 굳혔다. 산업종사자 4명 중 1명이 수출분야에 종사한다. 독일의 수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2005년 수출액이 약 810억 유로였다. 주요산업별 비중을 매출액 및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주요 산업별 매출액 및 종사자수

	매출액 (단위: 억 유로)	종사자수 (단위: 명)
자동차산업	2,350	767,000
전기전자산업	1,650	800,000
기계산업	1,510	864,000
식품산업	1,340	522,000
화학산업	1,220	422,000

자료원: 독일연방경제기술부/주: 2005년 통계가 2007년 12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최신수치임.

나. 2007년 주요 산업 동향

1) 자동차산업

독일의 자동차 등록건수는 2007년 9월에 11%대로 전년의 높은 수치에는 못미쳤으나 부가세 인상을 감안할 경우 26만 6천대로 평균적인 판매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3분기에는 독일 자동차 수입업체가 -9%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독일 자동차 생산업체는 계속적인 시장점유율 확장으로 수출실적이 2007년 9월에 다시금 9% 증가했다.

특히 화물차업체가 선전하여 신차 등록건수가 2007년 9월에 2만 9천대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출에서도 9월에만 2만 9천대로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계산업

독일 기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7월의 수입 및 수출은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7년 1-7월의 기계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 독일 기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하였으며 특히 대 EU국가의 수출이 무려 1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 아시아 수출 또한 꾸준한 성장세(13% 증가)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 미국 수출은 유로화 강세로 인하여 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전기, 전자산업

독일의 전기전자산업 매출은 2007년 1-8월 중 약 3% 증가했으며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이 약 4% 그리고 수출에 따른 매출은 약 2% 증가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발전 및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며 10년만에 처음으로 내수 매출이 수출 매출을 넘어섰다.

기계산업 및 화학산업의 경기 호황과 세계적인 투자동향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의 높은 수출 증가에 이어 2007년 1-7월 사이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다시 6%의 매출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화학산업

2006년 화학산업의 경기호황은 2007년 1-3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생산규모가 4.7% 증가하였다. 비록 무기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고분자 화학 분야에서 평균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내에 고르지 못한 현상을 보였으나 다른 분야에서 높은 생산량 증가가 나타났으며 의약품 산업은 10.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독일 화학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수 및 수출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원료 비용 상승에 따라 화학제품 생산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으나 기업들은 2006년 경기호황이 2008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원: 독일산업협회(BDI) 2007년 10월 25일 발표 경기 전망 보고서, 2007년 12월)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독일은 다음과 같은 대외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 유럽통합과 NATO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양안의 협력체제의 강화
- UN, OECD등 국제기구의 위상 제고 추진
- 인권 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 구축
- 러시아, 동구권 국가 및 아. 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대외정책 수행상 제약 요소가 해소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 되었는바, 경제분야에 이어 정치, 안보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구주통합 추진과 구주방위 및 대동구권 정책수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EU, G7 등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동구권 군소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 서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교노선은 EU(European Union),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증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구 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중. 동구 국가들의 EU, WEU, NA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중. 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일의 정치, 외교적 역할 강화는 EU 핵심 국가인 불란서 및 영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 향후 유럽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 동남아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 서남아 지역의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참가 및 ASEM, APEC, ARF 등 다자협력체를 통해 독일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문제가 독일과의 관계에서 중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외교 목표의 하나는 UN(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2003년 1월부터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독일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온갖 외교전을 펼친 끝에 어느 정도 지지세력을 잠정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패권주의에 공동전선을 펴온 프랑스와 러시아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다.

(자료원: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2007년 6월 기준)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7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불,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독일 수출	5,603	8,334	10,304	10,056	10,382	10.5%
對 독일 수입	6,822	8,486	9,774	11,364	12,269	16.3%
무역수지	-1,219	-152	530	-1,308	-1,887	-

자료원: 관세청

주: 2007년 11월까지 통계 기준

독일은 2007년 7월 기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순)이며, 한국의 제5위 수입국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UAE순)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한국의 제1위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다.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대로 독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세를 타다가, 2006년도에 소량 감소했다. 이는 2003년 - 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 급증세로 인한 반작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에 들어, 독일의 경기 호황으로 한국의 대 독일 수출 및 수입 모두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 독일 수출은 104억불을, 대 독일 수입은 123억불을 기록, 227억불 규모의 교역을 기록했다.

품목 별 대 독일 수출의 경우, 선박, 자동차, 영상기기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2007년 11월 기준, 對 독일 주요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순위다.

對 독일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반도체, 원동기 순으로 기계 및 기계부품 분야가 주를 이룬다.

독일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독일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대상국으로 2006년 한 해 국내 총 수입 자동차 물량 중 독일산이 31.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23.3%, 미국이 6.2% 순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한-EU FTA 체결로 국내 자동차 수입관세인 8%가 철폐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의 EU 수입 관세가 10%로 미국의 수입 관세율인 2%보다 8%나 높은 고 관세임을 고려할 때 한-EU FTA가 체결 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원: 관세청, IMF 및 무역관 자체정보)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對 독일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불, 통관기준)

품목명	2004		2005		2006		20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선박	646	81.5	1,589	191.3	1,494	-13.4	2,094	45
반도체	2,126	25.3	1,444	-32.1	1,914	32.6	1,685	-3.0
자동차	966	21.9	1,200	24.3	1,441	20.0	1,655	28.9
무선통신기기	1,090	127	1,558	43.0	1,487	-4.5	1,214	-14.6
컴퓨터	831	95.5	990	19.1	732	-26.0	746	10.6
평판디스플레이	258	72.9	779	201.8	703	-9.7	411	-37.7
영상기기	387	107.9	229	-40.7	135	-41.3	223	75.9
금속공작기기	315	368.5	508	61.4	121	40.6	172	60.9
건설광산기기	17	87.2	70	301.9	96	37.2	156	85.8
고무제품	144	26.6	160	11.2	108	-32.8	142	47.7

(자료원: 관세청, KITA)

對 독일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불, 통관기준)

품목명	2005		2006		20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	843	31.7	1,261,415	49.6	1,363	21.9
자동차부품	686,396	2	632,566	-7.8	694	19.7
기계요소	380,558	10.6	594	18.3	613	11.8
반도체	501	-3.4	518	3.4	598	27.1
원동기 및 펌프	351	-14.1	471	34.4	531	22.6
계측제어분석기	575	33.6	573	-0.5	530	3.1
기타화학공업제품	380	10.6	524	37.7	507	10.2
기타 기계류	295	2.3	408	38	435	16.7
농약 및 의약품	219	9.9	258	17.6	390	68.6
정전기기(static electric)	319	78	283	-11.4	312	28.7

(자료원: 관세청, KITA)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5년부터 부진세를 기록하다, 2002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200억불을 돌파하였고, 2006년에 214억불을 기록했다. 2007년 독일의 전체 수출 실적이 8.5% 증가하여 4년째 세계 제1위의 수출 강대국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 독일 수입이 지속 증가 추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 독일 수출 또한 독일의 수출호황에 따른 내수시장의 활성화, 소비심리 개선 및 설비투자 증대에 힘입어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1월 기준, 對 독일 주요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순이다. 증가율 면에서는 건설광산기기, 영상기기 및 금속공작기기가 각각 85.8%, 75.9% 및 60.9%로 크게 증가하여 높은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對 독일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반도체. 원동기 순으로 기계 및 기계부품 분야가 주를 이룬다. 2004년 초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독일의 기계설비 분야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은 전년 대비 약 11%의 성장률로 기계산업의 붐이 일었던 60년대 말 이래 최초로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독일은 기계설비 분야 매출액의 75%를 해외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어 수출 전략이 독일 기계설비산업계의 주요 성장 동력이다.

특히 2007년 7월 개시한 한-EU FTA 체결 시,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EU 수입 관세인 10%가 철폐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가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독일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각각 1위 및 2위의 수출 품목인 점을 고려할 때, FTA 체결 시 국내 독일 자동차 업체의 점유율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07년 7월 기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순)이며, 한국의 제5위 수입국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UAE순)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한국의 제1위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다.

(자료원: 관세청, KITA, 무역관 자체정보)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 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 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 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분류방식인 HS(Harmonized 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 EU의 수입규제 동향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2007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 수입규제 동향 전반

- EU 는 2007년 3월 30일 기준 반덤핑조치 130 건과 상계관세조치 12 건을 발효 중이며, 10 개 국 12 개 품목에 대해 가격 약속(undertakings)을 적용하고 있고 81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진행 중인 81 건의 조사 중 2007 년 신규 개시된 조사는 총 9 건으로서 중간재심(interim review) 7 건과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 2 건

2007년 1~3월 중 신규조사 분류

구 분	건수	비 고
반덤핑(anti-dumping)	-	
일몰재심(expiry reviews)	-	
중간재심(interim reviews)	7	태국 Steel ropes and cables (07.03.22) 등
수출자재심(new exporter reviews)	-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	2	인도 Graphite electrode systems (07.03.01) 등
세이프가드 (safeguard)	-	
반흡수(anti-absorption)	-	
합 계	9	

자료: EU 집행위 (DG for trade)

반덤핑 및 반 보조금 연도별/품목별 신규조사 현황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화학 및 관련제품	5	3	8	3	17	-
섬유 및 관련제품	2	2	4	1	2	-
목재 및 종이	-	1	-	-	-	-
전자	3	2	-	7	5	-
기타 기계엔지니어링	4	-	2	2	2	-
철강	5	-	13	4	5	-
기타금속	-	-	-	-	-	-
기타	4	-	2	9	5	-
합계	23	8	29	26	36	-
반덤핑	20	7	29	24	35	-
반보조금	3	1	0	2	1	-

자료: EU 집행위

반덤핑 및 반 보조금 국가별 신규조사 현황

국 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국	4	3	9	8	12	-
인도	3	2	-	1	2	-
인도네시아	2	-	1	-	-	-
한국	1	-	3	1	1	-
말레이시아	1	-	1	3	2	-
파키스탄	1	1	-	1	-	-
러시아	3	-	3	1	2	-
대만	-	-	3	1	3	-
태국	-	-	1	2	2	-
터키	1	-	-	-	1	-
우크라이나	-	-	-	1	3	-
미국	1	-	2	-	2	-
베트남	1	-	3	1	-	-
기타 국가	5	2	3	6	6	-
합계	23	8	29	26	36	-

자료: EU 집행위

□ 우회덤핑방지 조사강화

EU 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EU의 우회 덤핑 방지 관세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WTO 반덤핑 협정이 조사당국의 개별적 덤핑 및 피해 판정 없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의 우회덤핑방지 관세제도는 개별덤핑산정 과정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 기간 동안의 피해 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 EU의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 우회반덤핑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 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수출국에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 대한 수입규제 동향

- 2007년 6. 30일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6건과 상계관세 1건 등 총 7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 한편, 철강 제품은 수입대상국을 불문하고 세이프가드 대상이다.

EU 대한수입규제 내역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칩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05.12.1	'07.2.27 L59 p.1	부분 중간 재심 결과 관세 148.3 Euro/t SK 케미칼 그룹, KP케미칼 그룹은 무혐의
철강제 관연결구류	Ex 7307.9311/ 9319/9930/9990	반덤핑	'01.6.1	'02.8.24 L228 p.1 '03.5.8 L114 p.1	관세율: 44% 2007.8월 종료예정
컬러 TV	Ex 8528.1252/1254 /1256/1258/1262/ 1266	반덤핑	'92.11.25	'02.8.29 L231 p.1 '06.3.31 L93 p.26	관세율: 15.1% (LG, 삼성 제외) 2007.8월 종료예정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99.10.7	'00.12.28 L332 p.17 '05.3.17 L71 p.1 '07.4.11 L96 p.1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 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 2010.3월 종료 예정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8.31 L236 p.1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D-RAM	8542.2111/2113/2 117/2101/2105, 8548.9010	상계 관세	'02.7.25	'03.8.22 L212 p.1 '06.4.12 L103 p.1	관세율: 34.8%(하이닉스) 2006.4.12일 32.9%로 하향 조정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수출	2804.6900	우회 덤핑	'06.3.6	'04.3.4 L66 p.15 '07.1.19 L13 p.1	관세율: 49%

○ PET 칩 (페트병, 페트필름, 폴리에스테르 제조원료)

- 제 소 일: 99. 9. 22
- 조사개시: 99. 11. 6
- 제 소 자: EU 플라스틱 제조업 협회
- CN 코드: 3907 60 20, ex 3907 60 80
- 품 목 명: 점착성 173mg/l 이상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99. 11. 6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및 태국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동시 조사 개시
00. 8. 5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산 PET 칩에 대한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상계관세의 경우 한국산 PET 칩은 보조금 마진이 0.04-0.46%에 불과해 조사 종료. 그러나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4개국 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00. 11. 30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EUR/t) - 호남 101.4, 동국 148.3, 대한 28.2, SK 케미칼 0, 기타업체 148.3
03. 5. 22	○ 한국, 대만산 반덤핑 재심개시(EU플라스틱제조업체요청)
04. 3.22-4.6	○ 대한화성,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 현장실사
04. 8.27	○ 3개 실사기업에 대해 미소마진(중간보고서)
04. 11.26	○ 최종결과 발표(05.1.21 관보게재) - 3개 실사기업 0%, 호남, 동국 및 기타업체 이전과 동일
05. 3. 2	○ 05.12.1부터 종료예정 관보공고
05.12.1	○ 종료재심 및 대한화성,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에 대한 부분중간재심 실시공고
07.2.27	○ 부분중간재심 결과 (EUR/t) ○ SK케미칼,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칼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 철강제 관연결구류
 - 제 소 일: 01. 4. 17
 - 조사개시: 01. 6. 1(규제개시일: 02. 8. 25)
 - 제 소 자: Defence committee of EU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 피제조국: 체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국, 슬로바키아
 - CN 코드: ex7307 9311, ex7307 9319, ex7307.9930, ex7307 9990
 - 품 목 명: tube and pipe fittings(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mm

01. 6. 1	○ 반덤핑 조사 개시
02. 2. 7	○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산 잠정관세 부과
02. 8.24	○ 확정관세 부과(한국산 확정관세율: 44%)
02.12.11	○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으로 반덤핑관세 지속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공개요청
03. 5. 8	○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부과로 반덤핑관세율 단계인하 - 인하율: 03.28 일까지 20.3% - 03.3.29-04.4.28일까지 22.7% - 04.4.29-05.2.28일까지 24.8%

- 컬러 TV
 - 제 소 일: 92. 7
 - 조사개시: 92. 11. 25
 - 제 소 자: EACEM, SCAN (Society for Coherent Antidumping Norms)
 - CN 코드: ex8528.1252, ex8528.1254, ex8528.1256, ex8528.1258, ex8528.1262, ex8528.1266
 - 품 목 명: 컬러 TV(colour televisions)

90. 4	○ 소형 TV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95. 3. 27	○ 중대형 TV에 대해 13.4-17.9%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98. 11. 27	○ 삼성전자(1.8%)와 LG 전자(1.4%)의 경우 de minimis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철회, 여타 업체에 대해서는 15.1%의 반덤핑 관세 지속부과 결정 * 소형 및 중대형 구분 없이 모든 TV에 대해 부과
99. 10	○ 반덤핑 재심 개시
02. 8. 29	○ 15%의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결정 ○ 삼성, LG, 대우에서 당초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응 안하기로 함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 제 소 일: 99. 8. 23
 - 조사개시: 99. 10. 7
 - 제 소 자: CIRFS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
 - CN 코드: 5503.20
 - 품목용도: 쿠션, 자동차 시트 등의 기초재료

93. 11	○ 한국산에 대하여 1.6-4.8%의 반덤핑 관세 부과
97. 10	○ 반덤핑 재심을 개시하였으나 99. 7. 29일 한국산 덤핑 마진이 1.8%로 미소 마진 종료
99. 10	○ 한국, 인도산 반덤핑 조사 개시
00. 7. 6	○ 한국산에 대해 0-20.2%의 잠정관세 부과
00.12.28	○ 한국산에 대해 0-20.2% 확정관세 부과 - 대한화성, 성림: 0%(미소마진) - 휴비스, SK 글로벌: 각각 4.8%, 기타: 20.2%(새한 등)
03.12.8	○ 중간재심 통보(12.29 관보게재)
04.1.14	○ 샘플링기업으로 대한, 휴비스, 성림 3개사 선정발표
04.3-4월	○ 04.3.12 대한의 대응포기로 (주)새한으로 대체(집행위) - 새한에서 4.29 답변서 제출(휴비스, 성림 3월 기 제출)
04.7.29-8.13	○ 집행위 현장실사(휴비스, 새한인더스트리, 성림)
04.9.23	○ 공청회 개최(벨리스 변호사측에서만 참석)
04.12.7	○ 최종안 발표 - 성림 0%, 휴비스 5.7%, 새한인더스트리 10.6% 동우, 이스트영, 경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각 6% 기타업체 10.6% * 대만업체는 미소마진
05.3.17	○ 관보고시(04.12.7 발표내용과 동일)
05.4.4	○ 별도재심관련 Kellner 부과장 면담(상무관)
05.4.19	○ 05년 말 종료기로 관보게재
05.5.27	○ 4.19 관보정정(3.17자 관보대로 향후 5년간 적용)
05.12.22	○ LMP 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개시관보(C325)
06.4.28	○ 새한인더스트리 Hearing
07.4.11	○ LMP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 결과 (L96) : 제외 불가

- 양문형 냉장고
 - 제 소 일: 05.4.18
 - 조사개시: 05.6.2
 - 제 소 자: Whirlpool사 * 평균덤핑마진율: 43% 주장
 - 대상품목: 400리터 초과 양문형 냉장고
 - CN 코드: 8418 1091

05.4.18	○ 제소
05.6.2	○ 조사개시(관보게재)
05.6.6	○ 대표부에 제소장 및 질의서 사본 도착 - 집행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에 6.2일 기준 40일 내에 질의서를 회신하도록 요청
05.7.25	○ 답변서 집행위 제출
06.3.1	○ 집행위 잠정관세 관보게재(3.2일부 시행) -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
06.4.26	○ 삼성전자 Hearing
06.5.11	○ LG전자 Hearing
06.5.31	○ 대우 일렉트로닉스 Hearing
06.8.31	○ 확정관세부과 (대우 3.4%, LG 12.2%, 삼성 0%), 삼문형 제외

- DRAMs
 - 제 소 일: 02.6.10
 - 조사개시: 02.7.25
 - 제 소 자: 인피니온 (Infineon, 독일)
 - 대상품목: DRAM 및 파생품
 - CN 코드: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93. 3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제소자: 유럽전자부품 제조협회
-	○ 95. 6 - 97. 3월간 일시적으로 반덤핑 조치 부과정지
97. 4	○ 반덤핑 조치 재도입
97. 11. 25	○ 제소자의 제소 철회를 이유로 반덤핑 조치 종료
02. 7. 25	○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개시
03. 4. 24	○ 잠정상계관세 부과 - 삼성전자: 무세, 기타 업체 33% - 적용시기: 03.4.24일부터 4개월간
03. 5. 8	○ 세이프가드/반덤핑관세 동시부과로 관세율 단계인하 - 03.3.28일까지 20.3% - 03.3.29 - 04.4.28일 22.7% - 04.4.29 - 05.3.28일 24.8%
03. 8.22	○ 34.8% 확정관세 부과
04. 1.23.	○ WTO 분쟁해결기구 의제상정
04.8.24 일정확정	○ 04.5월, 6월 양측 서면입장서 제출 ○ 04.11월, 12월 1차, 2차 패널회의 ○ 05.3.15 중간보고서 배포 ○ 05.4.19 최종보고서 배포 ○ 05.6.17 WTO 회원국 회람 ○ 05.8.3 상소기한(양측 상소 안함)
06.2.24	○ 양자협상 개시(중간재심개시관련)
06.3.18	○ 부분중간재심 실시 관보게재(C67)
06.4.12	○ 34.8%에서 32.9%로 하향조정

□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품 목	내 역	집행위공고
Polyethylene Terephthalate	부분중간재심※	L59 2007.02.27 p.1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	관세 부과 연장	L13 2007.01.19 p.1

주: 부분 중간 재심 결과(EUR/t): SK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컬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관세 부과

3) 2007년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 통상정책 방향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 EU 의 통상정책, 규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과 맥락을 같이 함
 - EU 는 27 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공동통상정책 (Common Trade Policy)을 취하고 있으며, 무역부문 평균관세율이 4 % 에 불과한 가장 개방된 경제권 중 하나

- 2006.10월 EU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을 발표하고, 새롭게 전개되어 가는 글로벌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유럽의 성장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추진
 - 2006.12월에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적법하게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
 - 이른바 '개방의 효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무역규제수단을 사용. 특히, 반덤핑 관세는 현재 평균 5년인 부과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축소할 것을 검토 중
 - 한편, 경쟁력이 낮은 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세 혜택보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유도하며, 관세도 해당 역내기업들에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부과할 것을 제안
- 2007년 4.23일에는 EU 각료이사회로부터 한국, 인도, ASEAN 등 신흥성장국가와의 FTA 협상 권한을 승인 받은 후 한국과 가장 먼저 1차 협상을 진행(5.7 ~ 11)
 - 역내 보호주의적 무역조치를 지양하고 특히 교역대상국의 시장개방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강력히 요구
- 한편, 차량 CO₂ 배출 제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등 환경과 무역정책 간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환경과 관련된 EU의 기술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지 진출 업계(11개사)를 통해 파악되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 추가적용 예상 품목은 없다.
- 최근 3년간 대 EU 수출 증가율이 급상승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제품(MTI 836)에 대해서는 EU 역내기 업의 반덤핑 조사 제기 가능성이 있다.
 - 2005년 대 EU 수출액이 1,372 백만 달러로 전년(455백만 달러)대비 201.6 % 수출 증가율을 기록, 우리나라 대 EU 수출품목 중 6 위 차지
 - 2006년에도 3,132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28.3% 급증, 전체 수출품목 순위가 4위로 앞당겨졌다.

□ 교역관련 주요법규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 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 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칙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법규 이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 규격과 기술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벨기에를 비롯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 대한 수입규제 동향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 이행된다.

2007년 12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5건과 상계관세 1건 등 총 7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는 2007년 8월 종료되었다.

가. 반덤핑 규제품목

-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반덤핑 관세율: 휴비스 5.7%, 새한 10.6%
 -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 기타 10.6%(2010.3월 종료 예정)
- PET칩(점착성 173mg/10이상 PET)
 - 반덤핑 관세율: 호남석유화학 101.4 유로/t, 동국무역 및 기타 148.3 유로/t
 - 대한화섬, KP케미컬, SK케미컬 무형의
- 양문형 냉장고
 - 반덤핑 관세율: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철강제관 연결구류
 - 반덤핑 관세율: 44%(2007.8월 재심 개시)
- 실리콘 메탈(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적용되는 조치로 우회 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측에 제출기로 함)
 - 반덤핑 관세율: 49%

나. 상계관세 규제

- D-RAM: 2006년 4.13일부터 상계 관세율이 34.8%에서 32.9% 하향 조정
 - 단, 삼성전자는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EU 대한수입규제 내역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칩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05.12.1	'07.2.27 L59 p.1	부분 중간 재심 결과 관세 148.3 Euro/t SK 케미컬 그룹, KP케미컬 그룹은 무형의
철강제관 연결구류	Ex 7307.9311/ 9319/9930/9990	반덤핑	'01.6.1	'02.8.24 L228 p.1 '03.5.8 L114 p.1	관세율: 44% 2007.8월 종료예정
컬러 TV	Ex 8528.1252/1254 /1256/1258/1262/ 1266	반덤핑	'92.11.25	'02.8.29 L231 p.1 '06.3.31 L93 p.26	관세율: 15.1% (LG, 삼성 제외) 2007.8월 종료예정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99.10.7	'00.12.28 L332 p.17 '05.3.17 L71 p.1 '07.4.11 L96 p.1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 2010.3월 종료 예정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8.31 L236 p.1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D-RAM	8542.2111/2113/2 117/2101/2105, 8548.9010	상계 관세	'02.7.25	'03.8.22 L212 p.1 '06.4.12 L103 p.1	관세율: 34.8%(하이닉스) 2006.4.12일 32.9%로 하향 조정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수출	2804.6900	우회 덤핑	'06.3.6	'04.3.4 L66 p.15 '07.1.19 L13 p.1	관세율: 49%

□ 우회덤핑방지 조사강화

- EU 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이러한 EU의 우회덤핑방기관세 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WTO 반덤핑 협정이 조사당국의 개별적 덤핑 및 피해 판정 없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의 우회덤핑방지 관세제도는 개별덤핑산정 과정을 거쳐하고 있고 조사 기간 동안의 피해 판정도 생략하고 있다.
 - EU의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 우회반덤핑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 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 비용이 수출국에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요구된다.

(자료원: EU집행위)

5. 관세제도

가. 개요

독일은 EU회원국으로 역외국에 대하여 EU의 공동관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동관세율은 매 전년 하반기 EU 집행위에서 개정이 되어 EU 관보(Official Journal L-시리즈)에 공표가 되고, 공동관세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관세청은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EU의 상품 분류 체계는 CN (Combined Nomenclature)으로 불리며, HS Code 방식에 근거한다. CN은 8개 품목분류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첫 6개 단위는 HS Code와 동일하며 나머지 하위 2개 단위는 EU의 자체 분류체계에 근거한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나. 주요 관세율 종류

종류	대상국	비 고
양허세율 MFN	WTO 가맹국 (한국 포함), 개별 MFN체결 가맹국	품목별 상이함. 세부 관세율은 관세율 온라인 시스템 TARIC에서 조회 가능
특혜세율 GSP	GSP수혜국(개발대상국), LOME협정대상국 (아프리카회원국)	○ GSP 수혜국의 경우, EU 역내시장에 파급효과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높은 품목의 경우 종가관세기준으로 MFN 관세율에 추가로 3.5%의 관세 차감 혜택 ○ LOME협정 대상국의 경우, 對 EU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 시 무관세 혜택
일반세율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품목별 상이함. 세부 관세율은 관세율 온라인 시스템 TARIC에서 조회 가능

자료원: EU집행위 자료 정리

한국의 경우, WTO 가맹국으로 EU로부터 최혜국 대우 관세 혜택을 받는다. MFN 관세 적용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는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크게 3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품목은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가 부가되고, 영화필름, 농산물 일부, 식품, 석탄의 경우 종량세(Specific Tariff), 담배 등에는 종가관세와 종량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선택관세 (Alternative Tariff)가 적용된다.

다. 관세율 알아보기

- 2007년도 EU관세 규정 전문 (EU관보 L301, Volume 49, 공표일: 2006.10.31.)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oj/2006/L_301/L_30120061031en00010880.pdf
- 품목별/코드별 관세율 찾기 (관세율 검색 온라인 시스템: TARIC)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 "Tariff Rates" 클릭하면 해당 품목 관련 한국이 별도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가능
 - "Restriction"을 클릭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라.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 또한 독일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19%)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마. 기타 정보

- 독일 관세청: http://www.zoll.de/english_version/index.html
- GSP 규정(2006.1.1. 발효):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5/june/tradoc_123910.pdf

(자료원: EU 집행위, 독일 관세청)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제도

1) CE Mark 개요

EU 회원국 시장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CE 마킹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CE는 불어 "Conformité Européenne" 의 머릿글자로, 유럽기준에 부합함이라는 의미). 이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E 마킹은 보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EU회원국 내 적용되는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의미의 안전 인증 마크이며,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마크는 아니다.

□ CE 마크제도의 의의

-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통일
- EU 역내 물품이동 장애요소 제거
- EU 규정에 의한 국가 간 상이한 규정 대치
- EU 회원국 간 안전 테스트 인증서 인정

2) 대상품목

CE Mark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제품의 제조 및 특성상 EU규정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건들은 EU 내에서 판매/유통되기 전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품목	규정 지칭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3) CE 마크 취득 절차

제조업자, 대리인 혹은 수입자는 다음 단계를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 적합성 테스트 (conformity assessment) 실시 =>
- 제조기술 파일 (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출 =>
- 적합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 CE마크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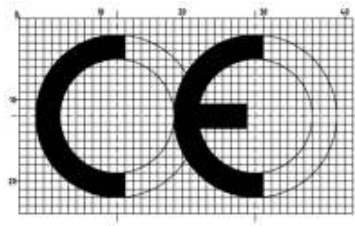
해당 품목에 따라 EU 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EU에서 공인하는 인증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개의 절차가 있다. 이 2개의 절차는 또한 세부적으로 아래 7개의 취득 절차로 나뉜다.

해당 품목이 자체평가 대상인지, 인증기관의 검사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해당되는 지침서 (Directive)를 입수하여, 지침서에서 규정한 적합 절차 모듈에 따라 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 CE마크 취득을 위한 7개 절차

- 절차 1: 모듈 A (적합선언)
 - EU인증기관을 반드시 거칠 의무 없이 바로 적합선언서 작성
 - 제조업자,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CE 마크 부착
- 절차 2: 모듈 B + C (형식적합선언)
 -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시험, 증명서 발급을 거친 후 적합선언서 작성
- EU국가별 인증기관 리스트
 -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newapproach/legislation/nb/notified_bodies.htm
- 절차 3: 모듈 B + D (생산품질보증)
 - 인증기관의 시험, 생산품질시스템(EN 29002) 심사 및 승인 후 적합선언서 작성
- 절차 4: 모듈 B + E (제품품질보증)
 - 인증기관의 시험, 제품품질시스템 (EN 29003) 심사 및 승인 후 적합선언서 작성
- 절차 5: 모듈 B + F (제품검정)
 - 생산자는 각 제품과 형식승인서에 기술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승인
 - 인증기관에 의한 적합성 확인 및 적합성인증서 발급 후 적합선언서 작성
- 절차 6: 모듈 G (단위 검정)
 - 생산자는 인증기관에 모든 제품 제출, 인증기관에서 인증기관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 후 인증서 발급
- 절차 7: 모듈 H (종합품질보증)
 - EN 29001 (ISO 9001) 품질인증시스템에 근거한 평가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EN/ISO 9001에 상응하는 품질시스템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 감시 하) 자체 평가 및 확인 후 적합선언서 작성

4) CE 마크 부착



- CE-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하여야 한다.
- CE-마크는 위와 같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한다.
- CE-마크의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마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게 그리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에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다면, 통지기관 인식번호 역시 CE-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의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있다.

5) 통용 지역

CE-마크는 EU국가와 EFTA국가에서 통용된다. (EFTA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EFTA 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CE 마크 의무국가는 아니다.)

나. TÜV (Technische Ueberwachungs-Verein, 기술검사협회)인증

1) TÜV 개요

- TÜV는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에서 일반 완구류,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산업 분야에 걸쳐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여러 인증 업무를 담당함.
- TÜV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유럽에 널리 사용되는 'CE 마크' 및 독일 내 안전한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GS 마크'가 있으며, 동 마크 부여를 위한 검사 및 시험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부문에서는 독일 안전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하는 TÜV 자체 인증인 'TÜV CERT'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부문 관련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시행함.
- TÜV에서 발급되는 인증서는 독일 전역 및 EU 내에서 효력을 발휘함.

2)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 TUEV는 전체를 관할하는 본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독일 전국에 개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 각 사업체마다 담당하는 검사 품목이 다르며 담당 품목이 겹치는 경우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
- 시험. 검사 가격 및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며, 인증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시험 실시 전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분야별, 지역별 수십 개의 TUEV 인증기관 중 대표적인 사업체는 TUEV Sued(남쪽), TUEV Rheinland (라인강 지역), TUEV Nord(북쪽) 세 기관이며, 규모면에서 보면 TUEV Saarland 및 TUEV Thuringen이 있음.
 - TÜV Saarland GmbH
 - Add : Am TÜV 1 D-66280 Sulzbach
 - Tel: +49 6897 506178 / Fax: +49 6897 506198
 - Email: boris_gehring@sgs.com
 - TÜV Thuringen e. V.
 - Add: Rudolstaedterstr. 41 07745 Jena
 - Tel: +49 3641 3997 40 / Fax: +49 3641 3997 71
 - Email: zertifizierung@tuev-thuringen.de
 - Homepage : www.tuev-thuringen.de
- TUEV의 경우 한국 내에 자회사를 설치하여, 동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반드시 독일 내에서 받을 필요는 없음.
- 오히려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및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 업체의 경우 TUEV 한국 내 자회사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음.

3) 강제인증 승인절차

- 검사 신청
 - 독일 또는 한국 내 TUEV 기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회사소개서 및 제품 설명서를 보내면, TUEV 측에서 관련 서식 및 계약서를 송부. TUEV에서 받은 검사 신청서, 계약서, 인증발급 조건 및 사후관리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
- 샘플 검사 시행
 - 업체의 품목 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TUEV 기관에서 신청 제품의 샘플 검사 및 실험 실시.
 - TUEV 내부적으로 어떠한 실험이 실행되는지는 업체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나, 검사 기준 미달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업체 측에서 추가 비용부담을 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장 검사
 - 샘플 검사를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서 및 공장 방문 보고서가 발급됨.
 - 공장 검사는 합격한 샘플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제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검사된 샘플 품목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게 됨.

- 사후 검사
 - TÜEV에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 확인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샘플 검사 및 공장 실사가 행해짐.
 - 인증서 효력이 끝나는 5년 뒤에는 특별 검사가 실시됨.

다. 기타 인증 마크

독일 및 유럽에서 통용되는 인증마크에는 GS, VDE 그리고 BG-PRÜFZERT 등이 있다.

- GS (Geprüfte Sicherheit: 검증된 안전)
 - GS마크는 제품이 독일기기 및 제품안전에 관한 법(das Gerät-und Produktsicherheitsgesetz)이 요구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마크이다. GS마크는 일반적인 품질인증서가 아니며, 때문에 제품수명과 관련된 인증은 보장할 수 없다. GS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소위 GS-Stelle라는 검사기관 (예, VDE, LGA, TÜV, BG-PRÜFZERT 등)에서 type테스트를 의뢰해야만 한다. 그밖에 GS-Stelle는 공장감시 등을 통해 제품을 계속적으로 컨트롤한다. 제품에 변경사항이 생길 시 제조업자는 GS-Stelle에 즉각적으로 보고 해야 하며, 이에 맞는 조치가 GS-Stelle에서 취해진다 (새로운 테스트 실시 내지는 인증서 내용 추가변경 등). GS마크는 기술부품 내지는 소모성 완제품을 위해 발행될 수 있다(예, 기계, 공구, 장난감, 전자기기, 전등, 가전제품 또는 가구). GS마크는 CE마크처럼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인증이 아니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증마크이다.
- VD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전기전자 IT 협회)
 - 1893년도에 설립된 독일 전기전자 IT협회는 전기전자 분야의 엔지니어들의 협회로써 이분야 규정 및 스탠다드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5개의 하위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IT협회, 에너지테크닉 협회, 독일 생명공학 기술협회, 마이크로 테크닉 VDI/VDE 협회 그리고 측정 및 자동화 기술 VDI/VDE 협회이다. 자체적으로 VDE인증마크를 설정, 전기전자 및 IT분야 안전관련 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VDE 인증마크는 독일 전기전자 제품뿐 아니라 기기 및 제품안전법에서 언급되는 제품도 포함하며, 독일 의료기기 법에서 언급되는 의료기기 역시 포함하고 있다. VDE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이 VDE규정을 준수했음은 물론 유럽 혹은 국제규정에 적합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 BG-PRÜFZERT (BerufsGenossenschaftliche Prüf- und Zertifizierungs-stelle: 검사 및 인증 직업연맹)
 - 1984년부터 검사 및 인증 직업연맹인 BG-PRÜFZERT는 소모성 완제품, 부품 및 부속품의 안전을 위한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BG-PRÜFZERT 인증마크를 위해서는 BG-PRÜFZERT (독일 내 19개소)에서의 제품 검사가 필수적이다. 취득한 인증마크는 최고 5년간 유효하며,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BG-PRÜFZERT는 특수한 용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취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 만을 인증 받을 수 있다.

(자료원: Tuev, VDE 및 무역관 자체조사)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개요

독일상표법에 따라 특허권은 독일 원천 소재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특허 명부에 등록되고 특허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특허 취득은 반드시 특허 출원에 의해 유료로 진행되는 특허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 취득은 반드시 활용 목적이 뚜렷한 최초의 발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도 독일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특허신청을 해야 하며,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특허 등의 출원도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변호사에게 인증을 받거나 법원이 지정한 번역사에 의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저작권의 차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registration)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저작권은 등록 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며 저작권은 이러한 특수 목적 이외에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 있어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저작권은 개인 스스로가 보호 및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위 징수단체 (collecting society) 가 있어서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대행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독일음악 저작권보호협회(GEMA) 같은 협회가 있다.

나. 지적재산권 분야별 개요

1) 특허 (patent, Patent)

- 관련법: 특허법, Patentgesetz (§§PatentG)
- 적용분야: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
- 보호기간: 20년까지 연장가능
- 구비 서류
 - (Antrag auf Patenterteilung)
 -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서 구할 수 있음.
 - 특허신청 관련 각종 양식 : <http://www.dpma.de/formulare/patent.html>
- 기술명세서 (Beschreibung)
 - 기술명세서에는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서술과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킨 내용 혹은 발명을 통해 얻어지는 장점이 기술되어야 한다.
 - 발명 용도와 관련 도면 (1장 혹은 여러 장)

- 특허권주장 (Patentansprüche)
 - 본 발명이 어떻게 기존의 기술과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정확히 특허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
- 발명자 (Erfinder) : 양식
- 요약서 (Zusammenfassung): 최대 150자 이내
- 우선권주장 서류 (필요시)
- 출원 비용
 - 신청 비용: 60유로 (인터넷 신청시 50유로)
 - 조사 비용: 250 유로
 - 심사 비용: 350유로
 - 특허권 유지비용: 매년 70유로

□ 특허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2년~2년 6개월 소요
 - 단,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신청서와 출원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

□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해야 하는지?

-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원 가능함. 독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독일 국내 거주 변리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특허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할 있나?

- 원헌, 베를린 소재 특허사무소 및 각 지역 특허정보센터에서 공표된 특허정보 검색 가능.
- 독일특허청은 전세계의 특허 정보 3천여만 건을 인터넷 플랫폼 DEPATISNet
- <http://depatisnet.dpma.de>을 통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http://ep.espacenet.com> : 유럽특허청 (EPO) 및 회원국들의 특허 정보 제공 사이트

2) 실용신안 (utility model, Gebrauchsmuster)

- 관련법: 실용 신안법, Gebrauchsmustergesetz (§§GebrMG)
- 적용 분야: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 기술 및 화학식은 등록할 수 없음.
- 보호기간: 기본 3년. 10년까지 연장가능

3) 의장 (design right, Geschmacksmuster)

- 1876년 이래 보호받은 권리로서, 1988년 7월 1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의 신청자들이 독일특허 및 상표청(DPMA)에 등록 가능해짐.
- 관련법: 의장법, Geschmacksmustergesetz (§§GeschmMG)

- 보호조건: 새로운 동시에 독창성을 지녀야 함.
- 의장법 § 1조 1항에 의거 의장은 평면 혹은 입체 (대상 전체 혹은 일부), 특히 선, 윤곽, 색상, 형태, 표면 또는 제품의 재질이 포함됨. 의장법 § 1조 2항에 의거 산업 및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포함, 예를 들어 포장, 외형, 그래픽 심볼 혹은 글자 도안. 방법: 의장등록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서명, 신청인 신상명세, 의장등록용 자료, 의장이 들어갈 제품 설명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 보호기간: 25년

4) 상표권 (Branding, Marken)

정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용 포장에 부착되는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UR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독일상표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대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상품 등을 영업상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생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유형 또는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 관련법: 상표법 Markengesetz (§§MarkenG)
- 보호기간: 10년 (차후에 추가 등록 비용 납부로 계속 10년씩 연장가능)
- 등록방법: 신청서작성/제출. 기한은 평균적으로 10~12개월소요.
- ®은 ‘등록했음’을 의미하며 등록된 제품에만 표시가능, 하지만 반드시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없다. TM 은 Trademark의 약자로 영어권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5) 기밀 (Secret, Geheimschutz)

- 관련법: 형법, Strafgesetz (§93 Abs.1 StGB)
- 적용범위: 국가 기밀은 자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및 기기로 주로 방위 기술, 원자력기술, 증권 및 Security서류 그리고 암호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밀은 특허 및 실용신안만 가능

다. 저작권 (copyright, Urheberrecht)

1) 유효기간: 독일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 사망 후 70년까지

2) 관련법

- Copyright Law (Urheberrechtsgesetz, UrhG)
- Publishing Law (Verlagsgesetz, VerlG)
- Copyright Administration Law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rhWahrnG)

라.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 **독일변리사협회**
 - Add : 29 D-80331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422-780
 - Fax : 49-(0)89-2422-7824
 - Web : <http://www.patentanwaltskammer.de>
- **유럽특허청**
 - Add : Erhardstrasse 27 D-80331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3990
 - Fax : 49-(0)89-2399-4465
 - Web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
- **독일특허 및 상표청 (DPMA)**
 - Add: Zweibrueckenstr. 12 D-80297 Muenchen Germany
 - Tel : 49-(0)89-2195-0
 - Fax : 49-(0)89-2195-2221
 - E-mail: info@dpma.de (특허 신청관련 각종 문의)
 - Web : <http://www.dpma.de>
- **음악 저작권협회(GEMA)**
 - Web: www.gema.de
- **미술 및 사진 저작권 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Bild-Kunst (VG Bild-Kunst)
 - Web: www.bildkunst.de
- **문학 저작권 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VG Wort)
 - Web: www.vgwort.de
- **예술 저작권 협회**
 - 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GVL)
 - Web: www.gvl.de
- **음악사용 저작권협회**
 - Verwertungsgesellschaft Musikedition (VG Musikedition)
 - Web: www.vg-musikedition.de
- **지도 및 전자문서 저작권 협회(GEKA)**
 - Web : www.geka-online.de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8. 통관/운송

가. 개요

독일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 (Lieferantenerklaerung)이며 이밖에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 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 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나. 통관절차 흐름도

1) 수입 통관

☐ 수입통관 시 구비서류

-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통관 절차

- 1단계
 - 수하인(Consignee)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등록번호 (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송부.
- 2단계
 - 통관 대행업체 (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와 하주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시스템에 등록 (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후 수입승인번호 (ATA No.)를 발급 받음.
- 3단계
 - 보세구역 (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

☐ 결제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 부담 범위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해상운임 (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 (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 (Custom's brokerage)
 - 관세(부가세 16%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해야 함. DDP 조건의 수출 시 계약서 (Sales Agreement)에 부가세는 Consignee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사후 분쟁 예방 가능. 2007년부터는 부가세가 19%로 인상될 예정이니 주의 요망.)
-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 상기 DDP 조건 중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 EU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 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 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c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 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 (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되어 있다).
-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입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License(Lizenz)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 (organe)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 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컬럼 5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 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물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 (2 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콜, 인산동물 (13항목), 식물(5항목)
- 공업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대상 물품(8항목)

□ ATLAS (Automatisiertes Tarif- und Lokales Zollabwicklungssystem) 개요

- 운영기관: 독일연방 재무부
 - 현재 전국 50여 개의 세관에서 운영 중
 - 홈페이지: www.kost-atlas.de
- 성격: e정부 구현(Bund Online 2005)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관처리
 -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
 - 상품분류 코드에 따라 관세 등 세율 자동 계산
 - 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 데이터처리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시간과 노력 절약 효과
- 운영목적
 - 기존 분야별 통관 전산시스템의 통합: ALFA, DOUANE, SADAT, KOBRA 등을 ATLAS로 통합
 - 전체 통관절차의 일원화
 - 주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제 IT 프로젝트와의 통합
 - 국제무역 관련 정보교환 용이
- 사용방법
 - 사용 희망자는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ID를 부여 받은 후 사용
 - 사용료는 제품, 분야 등에 따라 다르며,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
 - ID는 해당 본인과 대리인이 사용 가능
 - 전자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서명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2) 수출통관

□ 1단계: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구비서류
 - 수출면장 (Ausfuhrhandelbestaetigung)
 - EC 역내 (EX-1): EU 회원국에 수출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 (T-1):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품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출품

□ 2단계

- 상기 구비서류를 가지고 통관시스템(Dakosy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 받음.

□ 3단계

- 수출품을 해상, 항공 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통관 관련 협정을 통하여,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CARNET ATA를 통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단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통관을 하여야만 한다. CARNET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한국의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진행하면 된다.

자료원: <http://www.zoll.de>

다. 운송

1) 주요 항구

독일의 경우 북부독일지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있으며, 바다와 연결된 내륙의 길이는 400km정도이다.

- 함부르크
 - 독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2007년 12월 현재 유럽2위의 물류항구인 동시에 세계 8위의 컨테이너 항구이다.
- 브레멘
 - 독일의 2대항구이며, 과거 한자동맹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항구도시이다. 브레멘 시는 브레멘 도시와 북부 30km 지점에 위치한 브레멘 항구로 나뉘고 있다.
- 빌헬름스하펜
 - 네덜란드 접경지역과 북해지역에 위치한 독일의 3대항구이다.
- 그 밖의 무역항
 - 유럽의 동해 (Ostsee) 접경인 Rostock, Luebeck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 항인 Duisburg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항구이다.

2) 컨테이너 비용 / 운송소요기간

물류가격은 운송사마다, 화물의 종류마다 상이하고 컨테이너 베이스 또는 LCL베이스에 따라 상이하어 별도의 가격을 예시할 수가 없다.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으나 연도별, 환율, 운송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 20피트 컨테이너
 - 독일에서 한국까지 컨테이너 운송료: 900유로에서 1400유로 사이 (2007.11)
 - DOOR TO DOOR 이삿짐 또는 상품 운송료: 세금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경우 4000 ~ 6000유로 사이이나 운송업체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부산항 - 함부르크항 운송소요기간
 - 해운사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28일 정도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독일의 투자환경

독일은 미국, 베네룩스,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투자유입국가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투자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독일 내 해외투자액보다 많고 룩셈부르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독일은 국제 경쟁력저하로 투자매력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도 초기 5년 동안 평균 1%정도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해외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노동 개혁, 세제개혁(2008 시행 예정) 등에 힘입어 2008년도에도 경기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구권의 EU 가입으로 인해 유럽 내 물류의 중심이 독일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독일에 유럽 본부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투자 유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총 투자 유입/유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투자유입 총액	대외투자 총액	투자수지
2002년	217.99	256.44	-38.45
2003년	155.32	203.37	-48.05
2004년	145.96	263.93	-117.97
2005년	258.41	377.79	-119.39
2006년	289.13	429.86	-140.73
2007년 1-10월	525.92	749.57	-223.65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07

업데이트 시기: 2007년 12월

독일의 FDI 유입/유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FDI유입 총액	FDI유출 총액	FDI 수지
2002년	56.87	20.13	36.74
2003년	25.87	5.47	20.40
2004년	-7.41	11.94	4.53
2005년	28.84	44.64	15.80
2006년	34.17	63.31	29.14
2007년 1-10월	43.44	99.91	56.47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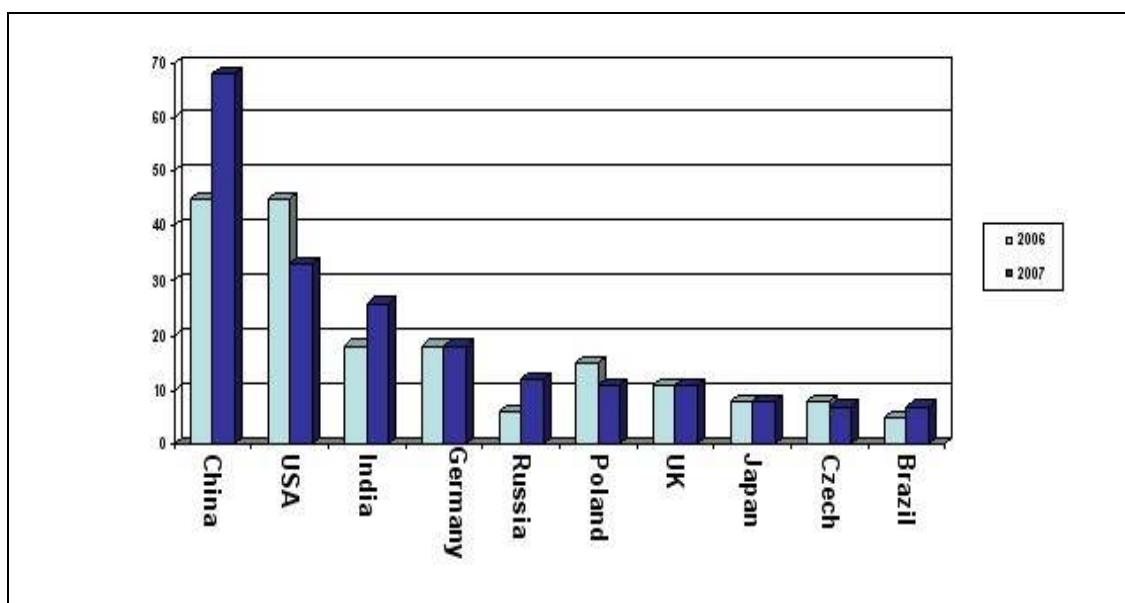
업데이트 시기: 2007년 12월

나. 독일의 투자 매력도

- 독일은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이다. 이는 단순히 독일의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사회 인프라, 유럽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시장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자랑한다. 8,200 백만 명의 인구는 유럽 최대이며 유럽 전체 인구의 17% 를 차지한다. 또한 GDP는 2006 년 기준으로 2,307 십억 유로로 유럽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 수출액의 경우 유럽국가라는 특징이 있긴 하나 2006 년 전년대비 13.5% 나 증가한 약 885십억 유로의 수출을 기록하여 세계 수출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 BCI INDEX(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출처: World Economic Forum)도 2006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관에서 실시한 Quality of the 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ranking 에서도 2006년 미국에 이어 2위를 보이고 있다.
- 809개의 국제기업 매니저를 상대로 실시된 2007년도 Ernst & Young의 직접투자 매력도 조사에서 독일은 유럽 국가 중 1위, 전세계 국가 중 중국·미국·인도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는 등 독일의 투자 매력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 이에 반면, 프랑스 및 스페인은 세계 10위 투자 선호국 리스트에서 탈락했으며, 유럽 국가 중 독일의 뒤를 이어 러시아, 폴란드, 영국 및 체코가 리스트에 포함됐었다.
- 전반적으로는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에 이어 투자매력국가 순위로 전체 5위, 선진국 중에서는 2위였던 2006년도 대비 독일 경쟁력이 2007년도에 들어서서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 대상자의 39%가 전년 대비 독일의 투자 입지국의 매력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기준 투자선호국 순위

(단위: %)



자료원: Ernst & Young

□ 전략적 위치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으로 통하는 Gateway로 불리기도 한다. 물류 부문에서도 EU 통합에 따라 총 4억 5천만 명의 유럽 인구가 이동하는 유럽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우수한 인적자원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고임금의 숙련된 노동자가 많기로 유명하며, 특히 장인 (Meister) 정신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전문 자격증 또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유럽 내에서 가장 많다.

그 동안 독일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경직성으로 기업들의 고충이 있었으나, 메르켈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해지고 고용 및 채용도 용이해지고 있다.

□ 인프라 시설 구축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 물류수송 1위, 승객수송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여 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독일은 총 12,044km 길이의 아우토반(고속도로)이 구축되어 있으며, ICE를 비롯한 철도 연결도 잘 되어있다.

다.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 장점

1) 지정학적 위치 및 이를 활용한 사회 인프라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예전부터 유럽 물류의 중심이었다. 특히 EU통합에 따라 총 4억5천만 명의 유럽의 물류의 축이 동진함에 따라, 독일이 유럽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물류수송 1위, 승객수송 2위의 프랑크푸르트공항 및 20여 개의 국제 공항이 있으며 DHL, DB 등 세계 굴지의 물류 회사를 겸비하고 있다. 총 연장 12,044km 길이의 Autobahn(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총 연장 약 12만 6천 km의 철도망, 약 1만 9천 km에 이르는 운하 또한 잘 발달되어 있다.

2) 고급인력 및 기술습득도

장인(Meister)정신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전문자격증 또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가장 많다. 또한 교육제도가 이중 시스템으로 일반 대학 진학 과정 외에 중등 과정부터 직업 교육을 받고 특히 기업과 연계하여 on-the-job training 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경직된 고용 구조가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관련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 R&D

2006년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특허출원건수 2위(14,274 건)에 이를 정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국가이다. 2006년도의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고도 기술 수반산업의 투자집중도 및 네트워크의 밀집성이 높아 외국 기업의 R&D 센터가 많이 입주해 있으며 동유럽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도 핵심 부품의 생산기지 또는 연구소는 독일에 두는 경우가 많다.

4) 유럽 최대의 시장 및 테스트 마켓으로의 가치

독일은 인구로 보나 GDP로 보나 유럽 최대의 국가이다. 특히 같은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까지 감안할 경우 시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소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꼼꼼하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독일인의 특성상 독일시장에서 인정 받은 제품은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5) 생활환경

외국인이 거주하며 사업을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영어가 잘 통용된다. 또한 구 동독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적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 단점

1) 경직된 노동시장

반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독일 노동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련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의 인건비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및 병가,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해 비용경쟁력 및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2) 높은 세금 및 경직된 사회구조

25% 에 이르는 법인세 및 각종 사회보장 비용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인 만큼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경직된 업무 처리를 보이는 국가로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2008년 에는 일련의 세제 개혁으로 인해 법인세가 15% 로 인하되고 각종 규제 등이 제거, 완화 되는 등 점차 사업환경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료원: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Ernst & Young, World Economic Forum 및 무역관 자체 조사)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대외 투자유입액

독일의 총 투자 유입/유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투자유입 총액	대외투자 총액	투자수지
2002년	217.99	256.44	-38.45
2003년	155.32	203.37	-48.05
2004년	145.96	263.93	-117.97
2005년	258.41	377.79	-119.39
2006년	289.13	429.86	-140.73
2007년 1-10월	525.92	749.57	-223.65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07

업데이트 시기: 2007년 12월

독일의 FDI 유입/유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FDI유입 총액	FDI유출 총액	FDI 수지
2002년	56.87	20.13	36.74
2003년	25.87	5.47	20.40
2004년	-7.41	11.94	4.53
2005년	28.84	44.64	15.80
2006년	34.17	63.31	29.14
2007년 1-10월	43.44	99.91	56.47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07

업데이트 시기: 2007년 12월

다. 국 별 투자 동향

2007년도 1-3 분기만을 놓고 본다면 상위 10개국 중 투자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연도별/국가별 투자유치(FDI) 현황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유로)

순위		2007년1-3분기	2006년	2005년
	총 금액	24,115	53,262	26,264
1	네덜란드	19,800	-2,060	6,526
2	룩셈부르크	14,291	1,443	11,783
3	프랑스	8,042	5,466	-17,540
4	이태리	3,115	2,276	20,648
5	아일랜드	1,619	4,578	4,190
6	스페인	1,034	137	653
7	스웨덴	923	-222	1,497
8	일본	873	631	-203
9	스위스	562	-379	4,570
10	핀란드	497	-239	339
-	한국	-191	452	706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Zahlungsbilanzstatistik November 2007

업데이트 시기: 2007년 12월

□ 투자동향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독일에 총 1,200억 유로(한화150조원)를 투자하고, 총 85만 명의 독일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 Amcham에 따르면 독일 내 미국 업체 중 매출규모로 가장 큰 업체는 GM과 FORD 미국자동차업체, 3위는 석유회사인 Exxon Mobil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GM의 경우 독일 OPEL사의 대주주로 2004년 총 143억 유로(한화 약 18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2002년부터 미국 기업 중 수위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FORD의 경우, 총 138억 유로 매출로 2위, Exxon은 127억 유로로 3위, IBM이 70억 유로로 4위, 필립 모리스가 65억 유로로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다른 어느 나라의 기업보다 독일 투자에 적극적이다.

일본 및 한국 업체의 경우 유럽 본부를 독일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일본은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위치해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 서독일 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진한 실정이다.

나. 업종별 투자 동향

독일은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High-Tech 분야에 강하다. 또한 근래에는 유럽 내 물류의 중심이 독일로 이동하면서 물류분야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유입도 이런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에 따른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독일의 주요 투자유치 분야 (2005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투자 분야	총 투자액
	투자유치 총 금액	26,264
1	금융 및 보험	18,811
2	무역(승용차 및 소비제품 수리 및 보수 포함)	2,877
3	제조업(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	2,444
4	교통(우주/항공) 및 방송	560
5	기타 미 분류 투자분야	7,159

자료원: Deutsche Bundesbank 2007년 4월 보고서 (1년에 1회 발행)

주: 2007년 12월 기준 2005년도 수치가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임

라. 지역별 투자동향

1)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35,752km²
- 인 구: 1,071만7천명(외국인 128만1천명 /12%)
- 주 도: 슈투트가르트
- 주요기관: 칼스루에에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소재
- 주요산업: 자동차와 마이크로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버스 및 인쇄기계제조, 서비스산업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최강의 경제수준 자랑
- 주요 외국기업: IBM, ABB, DaimlerChrysler,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 특기 사항: 칼스루에의 핵 연구 센터,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 연구 센터, 다수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아홉 개의 종합 대학 등이 있다.

2) 바이에른

- 면 적: 70,550km²
- 인 구: 1,244만3천명(외국인 117만5천명/9.4%)
- 주 도: 뮌헨
- 주요산업: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전자 및 전기, 보험, 출판, 기계제조 및 완구산업(뉘렌베르크), 섬유 산업, 자동차산업(아우구스부르크), 농업, 맥주산업
- 주요 외국기업: Denso (일본), Lear (미국), Johnson Controls (미국), Faurecia (프랑스) 등
- 특기사항: 독일 최대 면적의 주, 종합대학 및 다수의 전문대학 소재

3) 베를린

- 면 적: 883km²
- 인 구: 338만7천명(외국인 45만4천명/13.4%)
- 주요기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 주요산업: 기계제조,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산업, 섬유산업
- 주요 외국 기업: 주로 국제적인 호텔 및 은행 등이 위치해 있음
- 특기사항
 - 독일의 수도로서 경제보다는 정치 문화의 중심도시. 수많은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너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4) 브란덴부르크

- 면 적: 29,476km²
- 인 구: 256만7천명(외국인 6만7천명/2.6%)
- 주 도: 포츠담
- 주요산업: 농업, 강철, 갈탄, 기계제조 및 자동차 산업(벤츠의 화물차 조립 공장), 전자공학, 기계산업 및 서비스 산업
- 주요 외국기업: [UHY Deutschland AG](#)(회계법인, 영국), Rolls Royce(영국), ebay (미국), 이외 주요 국제 호텔 등(예: Holiday Inn, Mercure Hotel)
- 특기사항: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생산하는 도시였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으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과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산업이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 브레멘

- 면 적: 404km²
- 인 구: 66만3천명 (외국인 8만4천명/12.8%)
- 주 도: 브레멘
- 주요산업: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 및 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커피
- 주요 외국 기업: 에어버스, Maersk Logistics 등 국제운송 업체
- 특기사항: 두 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

6) 함부르크

- 면 적: 755km²
- 인 구: 173만4천명(외국인 24만4천명/14.1%)
- 주요기관: 세계각국의 영사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 주요산업: 해외무역 및 교통의 중심지, 조선소, 정유소,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산업, 정밀산업, 화학공업, 북부 독일 금융 및 서비스의 중심지, 언론도시
- 주요 외국 기업: 쉘, BP
- 특기사항: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항만 운송 등의 물류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다.

7) 헤센

- 면 적: 21,114 km²
- 인 구: 609만7천명(외국인 69만4천명/11.4%)
- 주 도: 비스바덴
- 주요기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 본점 (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금융, 박람회 중심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중심지, 기계제조, 기관차 및 객화차 제조, 자동차제조(Hoechst, Opel), 가죽산업(Offenbach), 광학산업(Wetzlar)
- 주요 외국 기업: Canon, General Motors, ITT, 펄시 콜라, Honeywell, 모토로라, Proctor&Gamble, Adam Opel AG, 삼성, 다우 코닝, DyStar, Kyorin Pharmaceutical (Japan), 은행(예: 유럽 중앙은행, Cr dit Suisse), 보험사, 회계법인(예: Ernst & Young 등)
- 특기사항: 유럽 최대의 화물항공이자 두 번째로 큰 여객항공인 프랑크푸르트공항소재 유럽 중앙은행 등이 소재하는 유럽 금융의 중심지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23,173km²
- 인 구: 171만9천명(외국인 3만9천명/2.3%)
- 주 도: 슈베린
- 주요산업: 농업, 목축업, 관광업
- 주요 외국 기업 : Sakthi Group (인도)
- 특기사항: 1,000개의 호수를 가진 주

9) 니더작센

- 면 적: 47,616km²
- 인 구: 800만 명(외국인 53만6천명/6.7%)
- 주 도: 하노버
- 주요 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 산업: 식품업(베이컨, 꿀), 광산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산업, 자동차산업(Volkswagen)
- 주요 외국 기업: GE Money Service (미국), Nedexco (네덜란드), Tulip Danish Crown (덴마크)
- 특기사항: 하노버를 중심으로 전시 산업도 발달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34,082km²
- 인 구: 1,807만5천명(외국인 196만4천명/10.8%)
- 수 도: 뒤셀도르프
- 주요기관: 통독 전 연방공화국의 수도 소재지 (본)
- 주요산업: 에너지 산업(31개 발전소 소재), 엔진, 소재산업, 양조, 석탄 및 철강, 화학, 섬유
- 주요 외국 기업: 포트, 오펔, ZTE (일본), UPS (미국)
- 특기사항: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유럽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

11) 라인란트-팔츠

- 면 적: 19,847km²
- 인 구: 406만1천명(외국인 31만1천명/7.7%)
- 수 도: 마인츠
- 주요 외국 기업: [DaimlerChrysler](#), 오펔
- 주요산업: 화학 및 제약 산업 (BASF), 포도주, 자동차 부품
- 특기사항: 구텐베르트 인쇄박물관 소재

12) 자알란트

- 면 적: 2,568km²
- 인 구: 105만6천명(외국인 8만8천명/8.4%)
- 주 도: 자아브뤼켄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유리 및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주요 외국 기업: 포트, Terex (미국), Amer Sports (핀란드)
- 특기사항: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움의 도시

13) 작센

- 면 적: 18,413km²
- 인 구: 429만6천명(외국인 11만8천명/2.8%)
- 주 도: 드레스덴
- 주요 산업: 박람회산업, 도자기, 전자공업, 자동차(폭스바겐, 폴로), 출판산업(라이프찌히)
- 주요 외국 기업: AMD (미국), Amazon (미국), Shell Solar (네덜란드), Hitachi Automotive Systems Europe (일본), Transcom (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 (이태리), Wicor Holding (스위스)
- 특기사항: 구 동독지역이면서도 외자 유치가 활발하고 산업이 발달

14) 작센-안할트

- 면 적: 20,446km²
- 인 구: 249만4천명(외국인 4만7천명/1.9%)
- 주 도: 막데부르크
- 주요산업: 농업(밀, 사탕무, 채소), 화학공업, 생명공학
- 주요 외국기업: Solvay Chemicals (벨기에), Polytec Plastics (호주), Roba Corrugated (스위스), Coil Aluminium (벨기에)
- 특기사항: 헨델의 출생지

1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15,761km²
- 인 구: 282만8천명(외국인 15만1천명/5.3%)
- 주 도: 키일
- 주요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산업 등
- 주요 외국 기업 : Sysmex Corporation (일본), Vishay (미국)

16) 튀링엔

- 면 적: 16,171km²
- 인 구: 235만5천명(외국인 4만7천명/2.0%)
- 수 도: 에어후르트
- 주요산업: 공작기계, 정밀 및 광학(Jena, Zeiss), 자동차(Opel), 전기 및 전자(Bosch), 농업(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유리, 장난감
- 주요 외국기업: Sandoz (스위스), BorgWarner Transmission (미국),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 Group Corporation(중국), TNT (네덜란드)
- 특기사항: 다른 주에 비해 녹지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 심장(German Green heartland)로 불리며,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

자료원: 독일연방은행,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IIC(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및 무역관 자체조사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독일관련 투자 통계

한국/독일 투자교류 현황

(단위: 백만 불)

	독일 對 한국 투자	한국 對 독일 투자	투자수지
2003년	370	28	342
2004년	487	206	281
2005년	705	58	647
2006년	484	51	433
2007년 1-3분기	343	52	291

자료원: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업데이트시기: 2007년 12월

한국의 對 독일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3분기
건 수	14	17	17	21	36
금 액	28	206	58	51	52

자료원: 수출입은행(신고 기준 통계임)
업데이트시기: 2007년 12월

나. 우리 주요 투자기업 리스트

독일 진출 주요 한국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투자금액
1	기아자동차	1999	현지법인	96,685
2	삼성전자	1982	현지법인	96,117
3	현대중합상사	1987	현지법인	70,757
4	효성	1977	현지법인	61,373
5	삼성물산	1975	현지법인	57,004
6	삼성코닝	1994	현지법인	33,400
7	현대자동차	1992	현지법인, 연구소	31,361
8	삼성SDI	1992	현지법인	26,784
9	하이닉스	1988	현지법인	26,314
10	LG상사	1975	현지법인	11,437

자료원: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개별법인 접촉

신규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1	글로벌비스	2006	판매 법인	자동차관련제품
2	대한통운	2006	서비스 법인	운송관련대리서비스
3	위니아 만도	2006	생산 법인	PAC, RAC
4	아리온테크놀로지	2006	연락사무소	Sat-Receiver
5	이노션월드와이드	2006	연락사무소	광고 기획 및 제작
6	현대제철	2007	지사	철강
7	옵코법인	2006	법인	평면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8	태화국제운송	2006	연락사무소	항공, 해상, 통관, 내륙운송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보유자료 및 개별법인 접촉

다. 우리기업의 대독일 투자 성향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본부를 독일에 설립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왕래가 간편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고급인력(영어 및 한국어 구사 인력 등)을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독일투자는 1980년 이후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우리나라의 대 독일 투자 유형은 그린필드형 투자 보다는 현지지사 설립에 집중하고 있어 독일을 생산거점으로 보다는 판매거점으로서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독일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지 법인을 통한 판매망 구축, 마케팅과 기술 및 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공장 설립은 최근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독일이 판매시장,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서는 좋은 지역이나 높은 인건비 및 세금 등으로 인해 생산공장 설립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도 본부는 독일에 두더라도 생산공장은 동구권 등에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의 대 독일 투자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금융,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초기이기는 하나 금융업계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라. 업종별 투자동향

자동차 관련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모비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만도, 넥슨 타이어 등 10여 개 기업이 진출한 상태이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선진기술 이전 및 기술 개발관련 연구소 설립 및 유럽 본사 등을 독일로 이전하는 등의 진출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로 지정된 현대자동차는 기술 연구소와 유럽법인의 확장을 통하여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아차도 올 해 프랑크푸르트에 새롭게 사옥을 건립하고 새 모델을 선 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는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총 5개 기관이 독일에 진출한 상태이며, 현지 투자 자금조달, FINANCING 및 현지 기업의 금융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프랑크푸르트지역에 10여 개의 국내은행이 진출하였으나 IMF 이후 철수한 은행이 다수로 2007년 현재 외환은행, 신한은행이 독일에 진출한 상태이다.

전자분야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LG전자, 하이닉스, 두산전자, 대우전자 등 2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한 상태로 판매활동에 집중, 삼성 코닝 등이 동독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휴맥스, 흥캐스트와 같이 전문품목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물류 부분에서는 입지 여건상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이 함부르크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 지역별 투자동향

한국기업의 99%가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뮌헨, 베를린 인근지에 투자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물류 및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선정에 관심을 두고 있어, Hessen주 NRW주, Hamburg, Berlin, Bayern주에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뒤셀도르프, 한국은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다.

구 동독 지역은 독일 정부 차원에서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KOTRA 무역관에서 자체 수집한 정보로는 독일 투자 한국기업의 수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63개, 뒤셀도르프 지역에 50개, 함부르크 지역에 14개, 베를린 지역 7개 및 뮌헨 지역 8개 등으로 총 142 곳이 진출해 있다.

(자료원: 독일투자청,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수출입은행 및 무역관 자체조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독일의 투자유치 시스템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같은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나 현재 독일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외국인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독일의 고질병이었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투자 유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IPA인 Invest in Germany를 통한 연방 정부 차원의 유치활동과 각 지자체별 유치활동의 두 가지로 나뉜다.

- Invest in Germany: 우리나라의 Invest Korea 와 같은 기구로 독일 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전반을 통합, 조정한다. 독일 투자를 위한 일반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외국기업 및 개인 그리고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지사 및 독일 해외 상회의소(German [Chambers of Commerce Abroad](#)(Auslandshandelskammern, AHK))를 통해 잠재 투자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다.
- 지자체: 각 지자체 또한 개별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며 지자체별 경제개발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nvest in Germany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Invest in Germany는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하고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투자 유치 활동은 독일 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 내에는 외국투자정보 안내 센터가 있고 각 주별로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 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 기관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 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 정부, 주정부, 경제개발 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 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2003년도에 우리나라 Invest KOREA에 해당하는 투자진흥기관(IPA)인 Invest in Germany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ICC(The New German Länder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가 올해 Invest in Germany를 통합, 독일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 희망자 지원 수준에서 벗어나 잠재 투자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투자 허가, 감독 기관

독일은 기업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허가, 감독 기관은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업 과에서 지역 관할 법원(Amtsgericht)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도 등록해 준다. 그러나 금융, 보험 등의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행정조직은 연방 정부-주정부-지역 관청 (대도시는 시청) 구역 관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투자나 기업 설립 등의 경우에는 구역 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역 관청의 관할 범위는 우리나라의 면 단위 정도이며, 구역 관청의 관할 지역은 우리나라의 읍 정도 규모이다.

다. 투자 제한 분야

공식적으로 독일 투자 시 공식적인 제한분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원칙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시 사전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독과점 위반 여부

시장독점을 막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독일기업 인수 및 투자 시에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Bundeskartellamt(독일 카르텔 연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박, 환경 오염,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

독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 및 금융,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시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보험업
- 은행업
- 부동산 중개소 및 브로커
- 국방 및 안전관련 산업분야
- 도박업
- 전당포업 또는 경매

라. 투자 인센티브

근본적으로 외국인인 내국인과 동등한 적용을 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우대 제도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중요성과 국내 투자 진흥을 위하여 독일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40%대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 하였으며, 2008년부터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방 경제개발 공사 등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 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혜택은 외투기업 및 독일기업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패키지에 따른 최대 지원 정도는 대기업의 경우 30%, 중기업의 경우 40%이며 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정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대출 형태의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25% 정도의 투자금만 가지고 독일(구 동독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Investment Allowance 와 Investment Grant 를 들 수 있다. Investment Allowance는 구 동독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원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12.5 %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nvestment Grant 의 경우 동서독 지역 관계 없이 EU 의 규제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이다. 두 제도를 포함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따른 지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독일 내 투자 시 보조금 제도

(단위: %)

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 지역	50%	40%	30%
Region in transition	50%(2010 년까지) 40%(2011 부터)	40%(2010 년까지) 30%(2011 부터)	30%(2010 년까지) 20%(2011 부터)
C 지역	35%	25%	15%(2010 년까지) 30%(2011 부터)
D 지역	15%	7.5%	7.5%/최대 200,00 EUR까지, 3년 이내
C/D 지역	35%/15%	25%/7.5%	15%/최대 200,00 EUR까지, 3년 이내
E 지역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		

- A 지역: Regions in Transition 및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지역
- Regions in Transition 지역:
 - 울젠(Uelzen), Lüchow-Dannenberg,
 -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지역: Havelland, Potsdam, Potsdam-Mittelmark,
 - Brandenburg, Teltow-Fläming, Dahme-Spreewald, Cottbus, Spree-Neisse, Ober-Spreewald-Lausitz, Elbe-Elster
 - 작센-안할트 및 작센 주 지역: Mansfelder Land, Sangerhausen, Saalkreis, Halle, Merseburg
 - 니더작센 및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라인란
 - Querfurt, Weißenfels, Burgenlandkreis, Leipziger Land, Leipzig, Muldentalkreis, Döbeln, Torgau-Oschatz, Delitzsch
- C 지역(동독 지역 및 구 서독 지역 중 산업의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곳)
 - 트팔즈/자알란트 지역, 바이에른 지역 등
- D 지역(동독 및 서독지역 중 인프라 구축이 C 지역 보다는 나으나 아직 미흡한 곳)
 -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바이에른 지역 중 일부 도시
- C/D 지역: Lübeck, Berlin, Göttingen, Neustadt, Weiden
- E 지역: 구 동서독의 경계였던 지역(Herzogtum Lauenburg, Gifhorn, Wolfenbüttel, Hersfeld-Rotenburg, Fulda, Rhön-Grabfeld, Hassberge 등)

중기업 및 소기업의 구분

구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규모
중기업	250 인 미만	5천만 유로 이하	4천 3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50인 미만	1천만 유로 이하	천만 유로 이하

그러나 독일의 투자지원 제도는 각 주별로 매우 상이하며 상기 지역 구분도 동일 주 내에서 도시별로 달라지는 등 매우 복잡하게 적용된다. 일부 주의 경우 투자 전에 기업과 지방 정부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 및 논의가 필요하다.

(자료원: 독일 투자청(Invest In Germany) 및 무역관 자체정보, KPMG 자료 인용)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현지법인

-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외국인이 사전허가 또는 신고 없이 투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허가증 및 노동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 독일의 대표적인 법인은 크게 AG(주식회사) 및 GmbH(유한회사)로 구분되며, 두 법인 형태에 해당되는 회사는 총 95% 정도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인 회사 및 파트너쉽 형태(합명, 합자 등)의 회사가 존재한다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 다수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최소 자본금은 50,000유로이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시에는 총 자본금의 25%만 예치하면 가능하다. 주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상장이 용이한 형태의 법인이다.
-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 대부분의 독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 예치 시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25%의 금액만 예치하면 된다.
- 합자회사(KG)
 -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우리 상법의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우리 상법의 유한책임사원) 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 가능.
- 2008년 주요 변경사항
 - 유한회사의 설립 자본금 최소한도를 10,000 유로로 인하하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없더라도 추후 잉여금의 자본적립을 통해 조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또한 공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나. 법인 설립 절차

☐ 법인설립 필요서류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등
- 최소 납입 자본금(EURO 25,000) 납입 증명서
- 필요 시 대표위임장

☐ 법인 신청 절차

- 법인 설립 신청 기관은 투자대상 지역의 관할 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이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자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타당성 타진



투자허가신청(한국), 기업설립신청(독일)



기업설립신청 승인 후 설립관련 서류제출

(관할지역 상업등기소 및 법원, 세무서, 산재보험조합, 주정부 통계청, 상공회의소)

□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

- 관할 법원 등록: 해당지역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Amtsgericht)이며 2007년부터 전자적 등기도 가능(www.unternehmensregister.de).
- 등기 완료 후 연방관보에 게재
 - 투자신청 시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동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동 등기가 필요 없다.
- 등기 비용: 개인 및 파트너쉽 형태 250 유로, 유한회사 400 유로, 주식회사 500 유로 (최소 비용, 공증비용 별도)

□ 유관기관 통보 절차

- 투자 신청 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게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보 필요 기관: 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 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IHK)

다. 지사 설립절차

□ 독일 내 지사 설립

- 외국 주식회사가 독일 내 지사 설립 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지사 설립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 법원의 등기는 필요하다.
- 그러나 지사는 독일 내에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사 설립 전에 납세의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사는 ‘법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외에 별도 경영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관련 노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설립 절차

- 외국기업의 독일 지사 설립 시에 특별한 사전허가 절차는 없다. 지사는 영업 프로파일 없이도 비독립적 형태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비독립적인 지사는 연락 사무소 또는 소형의 판매사무소이며,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이와 달리 소정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 독일에 설립된 외국모기업의 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사의 활동은 모기업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 외국기업의 지사는 관할지역의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몇 가지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독일 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지사 경영 관련 정보

- 영업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독자적인 영수증 발급 혹은 자금수령은 본사(모기업)가 직접 하여야 한다.
- 운영경비
 - 지사 운영경비는 본사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환급에 대한 법적 권리 존재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되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직원비자
 - 2005년 비자협정 발효 후 원칙적으로 비자취득은 현지(독일 내) 외국인 청에서 발급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파견직원 소득세 납부
 - 파견직원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2.10월 한-독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사회보장제 면제 협정에 의해 사회보장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절차
 - 지사설립 지역(지사 소재지)시청에 신고(Gewerbeanmeldung) 의무가 있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 관할지역 소재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서류
 -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회사정관, 서울본사 등기부등본, 이사회 명단, 자본금, 회사소재지, 현지파견자 인적 사항 등 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라.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연락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단지 광고업무 또는 정보 수집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치됨. 따라서 회계장부의 의무는 없다.

☐ 사무소 설립 필요서류

- 한국에 회사가 존재함을 증명; 설립증명서 및 법원의 등기자료
- 필요 시 영업활동 허가증
- 필요 시 대표위임장

마. 공장설립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지역 관할 관청 기업담당 부서(Gewerbeamt)에 투자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필요한 경우 기업과에서 확인 가능
- 최소 납입 자본금 (25,000유로) 증명서 -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에 상업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투자신청 후 관할지역 기업담당부서로부터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 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IHK) 등에 자동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성을 위해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바.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취득절차

원 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지불-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관할지역 등기소(Grundbuchamt)의 등기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내, 외국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취득대상 부동산의 법적 하자 및 행정 규제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는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고, 도시계획에 따라 부동산 사용목적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거법률인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의 시행세칙은 각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사. 건축 및 관련허가

☐ 건축감독(Bauaufsicht)

헷센(Hessen)주의 경우 헷센 주 건설법(Hessische Bauordnung)을 통해 부지, 시공 등에 대한 일반조건(도로인접간격, 비상계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소방규정, 주차장 규정, 상가규정, 빌딩규정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

☐ 담당 관청

헷센 주의 경우 37개의 기초 지자체청이 담당관청으로 있다.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시청 제4국인 도시계획국의 건축 감독과가 담당관청이다. 헷센주에는 상위 감독관청으로서 Darmstadt, Giessen 및 Kassel에 각각 1개의 정청이 있다. 정청은 지방 주와 기초 지자체 중간에 있는 기구로서 각각 1개의 구(Regierungsbezirk)를 관할하고 있다. 헷센주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 정부 내무성 건설국이다.

☐ 건축허가 신청

담당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에는 설계도와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건물높이, 상하수도 영향, 대기오염, 대지 형질변경 등을 검토하며, 연방 배출물 규제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및 사용 용도 시행령(Baunutzungsverordnung)을 적용, 검토한다. 관청은 필요 시 TUEV 검사를 의뢰한다.

건축계획 입안에서 허가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며, 건축허가 절차 및 초기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임대공장 또는 지자체에 의해 기 조성된 공업 단지 또는 상공회의소의 창업보육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의 생산시설 설치허가: 건축 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헷센 주의 경우, 담당 관청은 건축허가 담당관청과 동일하다.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 참조사항

지역에 따라 건축 및 관련 허가 절차에 차이가 있음. 헷센주의 경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 하나 바이에른 주의 경우 건축보전법을 적용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별로 투자 시 토지의 장기 임대 등 관련 인센티브가 존재함. 사전에 지방 정부 또는 투자유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절차 진행 시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아. 투자관련 기관

☐ 중앙기관

- Invest in Germany
 - 주소: Anna-Louisa-Karsch-Strasse 2, 10178 Berlin
 - 전화: +49-(0)30-20657-0, 팩스: +49-(0)30-20657-111
 - E-Mail: office@invest-in-germany.com
 - 홈페이지: www.invest-in-germany.de

□ 지방정부 기관(하기 리스트 외 다수)

- 프랑크푸르트 경제개발 공사 (Wirtschaftsfoerderung Frankfurt)
 - 주소: Hanauer Landstr. 182, 60314 Frankfurt/M, Germany
 - 전화: +49 69 212 36 209
 - 팩스: +49 69 212 36 230
 - 홈페이지: www.frankfurt-business.de
 - 기관개요: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파트너 발굴도 함.
- 바덴뷔르템베르크 국제경제협력청 (Baden-Wuerttemberg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Ltd. (GWZ))
 - 주소: Willi-Bleicher-Str. 19, 70174 Stuttgart, Germany
 - 전화: +49 711 22787
 - 팩스: +49 711 22787
 - 홈페이지: www.bw-invest.de
 - 기관개요: 지방정부 투자담당 부서
- Invest in Bavaria
 - 주소: Prinzregentenstr. 28, 80538 Muenchen
 - 전화: +49 89 2162-2642
 - 팩스: +49 89 2162-2803
 - 홈페이지: www.invest-in-bavaria.de(한국어 정보 제공)
 - 기관개요: 바이에른주 투자담당 기관
- NRW. Invest GmbH
 - 주소: Voelklingerstr. 4, 40219 Duesseldorf
 - 전화: +49 211 13000-0 / 팩스: +49 211 13000-154
 - 홈페이지: www.nrwinvest.com
 - 기관개요: NRW 지역 투자담당 기관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hk.de), Invest in Germany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 자료)

6. 투자입지여건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청)이나 FTZ(자유무역지구)에 해당하는 특별경제 구역은 없다. 다만 지역 또는 산업별로 지원정책이 있으나 회사의 진출방식 또는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여러 곳에 문의하여 세밀하게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가. 투자진출지역의 신중한 결정

1) 투자진출 목적의 명확화

현지진출 목적을 정보수집용 연락사무소 설치, 상품의 판매유통,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지역, 투자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지역별 각종 투자지원 정책 및 혜택 비교조사

독일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 지방정부들의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범위가 상이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지역별로 상이한 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하면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나. 구 동독지역 투자

1) 지역 특징 및 지원제도

구 동독 지역의 개발을 위해 독일 정부에서는 구 동독 지역 투자 시에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법령 INVZULG 2007을 통하여 투자보조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지대의 경우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 동독 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특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연구개발 센터가 다수를 차지하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높은 자동화(automization)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구 동독 지역에만 적용되는 투자인센티브로는 Investment Allowance 가 있다.

- 대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2.5% 지원
- 중소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25% 지원
-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2.5% 지원

여기에 다른 투자지원제도까지 활용할 경우 타 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5년간 지원 대상 자산이 동 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제약도 있다.

2) 동독 지역 투자 시 유의점

무엇보다 구 서독 지역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통독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이 구 동독 지역 개발을 위해 쓰여 졌지만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 층이 대거 구 서독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서 지역 자체가 쇠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해 외국인 특히 동양인의 경우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삼성전자에서 브라운관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나 현재는 연구소 및 일부 시설만 남기고 폴란드로 철수한 상태이다. 구 동독 지역 투자 시에는 해당 사업의 시장성, 독일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 독일의 지역별 투자여건

1)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35,752km²
- 인 구: 1,071만7천명(외국인 128만1천명 /12%)

- 주 도: 슈투트가르트
- 주요기관: 칼스루에에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소재
- 주요산업: 자동차와 마이크로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버스 및 인쇄기계제조, 서비스산업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최강의 경제수준 자랑
- 특기사항: 칼스루에의 핵 연구 센터,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 연구 센터, 다수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아홉 개의 종합 대학 등이 있다.

2) 바이에른

- 면 적: 70,550km²
- 인 구: 1,244만3천명(외국인 117만5천명/9.4%)
- 주 도: 뮌헨
- 주요산업: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름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전자 및 전기, 보험, 출판, 기계제조 및 완구산업(뉘렌베르크), 섬유 산업, 자동차산업(아우구스부르크), 농업, 맥주산업
- 주요 외국 기업: Denso (일본), Lear (미국), Johnson Controls (미국), Faurecia (프랑스)
- 특기사항: 독일 최대 면적의 주, 종합대학 및 다수의 전문대학 소재,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가 열리는 도시

3) 베를린

- 면 적: 883km²
- 인 구: 338만7천명(외국인 45만4천명/13.4%)
- 주 도: 베를린
- 주요기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 주요산업: 기계제조,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산업, 섬유산업
- 특기사항
 - 독일의 수도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 수많은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너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 쇼핑의 중심 도시. 독일에서는 드물게 평일에는 제한 없이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가능

4) 브란덴부르크

- 면 적: 29,476km²
- 인 구: 256만7천명(외국인 6만7천명/2.6%)
- 주 도: 포츠담
- 주요산업: 농업, 강철, 갈탄, 기계제조 및 자동차 산업(벤츠의 화물차 조립 공장), 전자공학, 기계산업 및 서비스 산업
- 주요 외국기업: [UHY Deutschland AG](#) (회계법인, 영국), Rolls Royce(영국), ebay (미국), 이외 주요 국제 호텔 등(예: Holiday Inn, Mercure Hotel)
- 특기사항: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생산하는 도시였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과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산업이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 브레멘

- 면 적: 404km²
- 인 구: 66만3천명 (외국인 8만4천명/12.8%)
- 주 도: 브레멘
- 주요산업: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 및 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커피
- 주요 외국 기업: 에어버스, Maersk Logistics 등 국제운송 업체
- 특기사항
 - 두 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
 - 지역 GDP의 1/3 이 해상운송 및 대외교역에 의해 발생할 정도로 물류가 발달

6) 함부르크

- 면 적: 755km²
- 인 구: 173만4천명(외국인 24만4천명/14.1%)
- 주요기관: 세계각국의 영사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 주요산업: 해외무역 및 교통의 중심지, 조선소, 정유소,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산업, 정밀산업, 화학공업, 북부 독일 금융 및 서비스의 중심지, 언론도시
- 주요 외국 기업: 쉘, BP 등
- 특기사항
 -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금융이 산업의 중심
 - 유럽에서 2번째,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컨테이너항. 중부와 북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

7) 헤센

- 면 적: 21,114 km²
- 인 구: 609만7천명(외국인 69만4천명/11.4%)
- 수 도: 비스바덴
- 주요기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 본점 (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금융, 박람회 중심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중심지, 기계제조, 기관차 및 객화차제조, 자동차제조(Hoechst, Opel), 가축산업(Offenbach), 광학산업(Wetzlar)
- 주요 외국 기업: Canon, General Motors, ITT, 펄시 콜라, Honeywell, 모토로라, Proctor&Gamble, Adam Opel AG, 삼성, 다우 코닝, DyStar, Kyorin Phamaceutical (Japan), 은행(예: 유럽 중앙은행, Cr dit Suisse), 보험사, 회계법인(예: Ernst & Young 등)
- 특기사항: 유럽 최대의 화물항공이자 두 번째로 큰 여객항공인 프랑크푸르트공항소재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대학도시(Marburg, Giessen), 독일의 FDI 유입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23,173km²
- 인 구: 171만9천명(외국인 3만9천명/2.3%)
- 주 도: 슈베린
- 주요산업: 농업, 목축업, 관광업
- 주요 외국 기업: Sakthi Group (인도)
- 특기사항: 1,000개의 호수를 가진 주

9) 니더작센

- 면 적: 47,616km²
- 인 구: 800만 명(외국인 53만6천명/6.7%)
- 주 도: 하노버
- 주요 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산업: 식품업(베이컨, 꿀), 광산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 자동차산업 (Volkswagen)
- 주요 외국 기업: GE Money Service (미국), Nedexco (네덜란드), Tulip Danish Crown (덴마크)
- 특기사항: 하노버를 중심으로 전시 산업도 발달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34,082km²
- 인 구: 1,807만5천명(외국인 196만4천명/10.8%)
- 수 도: 뒤셀도르프
- 주요기관: 통독 전 연방공화국의 수도 소재지 (본)
- 주요산업: 에너지산업 (31개 발전소 소재), 엔진, 소재산업, 양조, 석탄 및 철강, 화학, 섬유
- 주요 외국 기업: 포트, 오펔, ZTE (일본), UPS (미국)
- 특기사항: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유럽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

11) 라인란트-팔츠

- 면 적: 19,847km²
- 인 구: 406만1천명(외국인 31만1천명/7.7%)
- 수 도: 마인츠
- 주요 외국 기업: [DaimlerChrysler](#), 오펔
- 주요산업: 화학 및 제약 산업 (BASF), 포도주, 자동차 부품
- 특기사항: 구텐베르트 인쇄박물관 소재

12) 자알란트

- 면 적: 2,568km²
- 인 구: 105만6천명(외국인 8만8천명/8.4%)
- 주 도: 자아브뤼켄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유리와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주요 외국 기업 : 포트, Terex (미국), Amer Sports (핀란드)
- 특기사항: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움의 도시

13) 작센

- 면 적: 18,413km²
- 인 구: 429만6천명(외국인 11만8천명/2.8%)
- 주 도: 드레스덴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도자기, 전자공업, 자동차(폭스바겐, 폴로), 출판산업(라이프짜히)
- 주요외국기업: AMD(미국), Amazon(미국, Shell Solar(네덜란드), Hitachi Automotive Systems Europe(일본), Transcom(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이태리), Wicor Holding(스위스)
- 특기사항: 구 동독지역이면서도 외자 유치가 활발하고 산업이 발달

14) 작센-안할트

- 면 적: 20,446km²
- 인 구: 249만4천명(외국인 4만7천명/1.9%)
- 주 도: 막데부르크
- 주요산업: 농업(밀, 사탕무, 채소), 화학공업, 생명공학
- 주요 외국기업: Solvay Chemicals (벨기에), Polytec Plastics (호주), Roba Corrugated (스위스), Coil Aluminium (벨기에)
- 특기사항: 헨델의 출생지

1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15,761km²
- 인 구: 282만8천명(외국인 15만1천명/5.3%)
- 주 도: 키일
- 주요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산업 등
- 주요 외국 기업: Sysmex Corporation (일본), Vishay (미국)

16) 튀링엔

- 면 적: 16,171km²
- 인 구: 235만5천명(외국인 4만7천명/2.0%)
- 주 도: 에어후르트
- 주요산업: 공작기계, 정밀 및 광학(Jena, Zeiss), 자동차(Opel), 전기 및 전자(Bosch), 농업(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유리, 장난감
- 주요 외국기업: Sandoz (스위스), BorgWarner Transmission (미국),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 Group Corporation(중국), TNT (네덜란드)
- 특기사항: 다른 주에 비해 녹지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 심장(German Green heartland)로 불리며,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

자료원: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무역관 보유자료

7. 노무관리

가. 독일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는 매우 엄격하며, 다수의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해고가 용이하지 않기로 알려져 있으며,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용 관계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독일의 노동법은 민법 내에서도 독자적 성격을 띠는 특수분야이다.

나. 독일의 노조

독일에서는 Kuendigungsschutz(해고보호법)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법이있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담당기관으로는 산별 노조가 있으며,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DGB(Deutsche Gewerkschaftsbund)라는 독일노조연방이 최고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에는 IG METALL, VERDI, IG CHEMIE, IG BAU 등과 같은 산별 노조가 속해 있다. 근무조건 및 임금인상관련 노조협상은 각 산 별 노조가 경영자협회(BDA)의 각 분과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위 Tarifvertrag (의역: 산별 노조협약서)을 통하여 각 산업별 분과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의 개별기업 노조는 Gewerkschaft가 아닌 Betriebsrat로 불리고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Betriebsrat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기업별 노조(Betriebsrat)는 자신의 협상에 유리한 산 별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다. 노동관련 제도

1) 노동조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Arbeitsgenehmigung) 및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가 필수적이다. 독일인 및 EU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 체류허가도 단기간에 부여되는 특권이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타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신청절차 및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문제 타계를 위해 독일 정부는 보다 완화된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07년 10월부터 중·동 부 유럽 출신의 기계, 자동차 및 전기 부분 노동자들은 독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학생들도 졸업 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근무시간

일반 직장의 노동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근무하며,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독일 직장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과 같이 일괄적인 노동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 별 노조 별로 근무시간을 협상하고 있다. 독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침체 및 재정적자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연장되는 분위기이며, 일부 주 가운데 특히 헤센 주의 공무원들은 주당 41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독일의 영업시간 규제는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관련 권한은 각 지방 정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영업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몇몇 대도시의 경우 상점 및 백화점들이 평일 및 토요일에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을 가능하다. 점점 많은 주들이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3) 임금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도 독일 남성 및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3,127 유로 및 2,483 유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급여에 차이가 있는 편이다.

월평균 급여는 업종별로도 편차가 심해 남성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종은 2,596유로인데 반해, 서비스 업종은 3,771 유로이다. 여성의 경우도 일반 비서직은 초봉이 월 2천 유로부터 시작하고, 중간 관리자의 경우 3천 유로 이상이다.

통독 이후에도 여전히 구서독과 구동독의 급여차이는 존재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은 구서독 지역 임금의 80% 수준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독 직후의 40%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이며,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 지역의 노동자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봉의 5-15% 또는 월급의 100% 정도이며, 대부분 연말에 지급하므로 독일에서는 이를 13번째 급여라고도 부른다. 이 밖에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비(Urlaubsgeld) 또는 추가 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주가 반드시 크리스마스 보너스 또는 휴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회사의 정책(betriebliche Übung)으로 보아 다음 해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대우의 원칙(Gleichbehandlungsgrundsatz)에 따라 임의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휴가 및 병가

독일 노동자의 연차는 25일에서 30일 정도이며, 출산 휴가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병가는 대부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지나치게 잦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들도 환자의 요구 대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5) 해고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에 따라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었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약,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유로 인한 해약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약으로 나뉜다.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직원의 고용 및 해고가 용이해 지고 있다.

다. 외국인의 채용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노동 및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EU 국가의 국민은 직업에 관계없이 독일 내 거주허가서 한 장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그들을 독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5년짜리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EU 이외의 국가 출신 노동자는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본국 소재 독일 영사관에서 임시 체류허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 3개월짜리를 발급해 주는데 입국 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해 준다. 노동허가는 고용주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발급된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노동자의 경우는 별도의 허가 없이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노동허가 또한 경우에 따라 3년 단위로 갱신해 주기도 한다.

노동허가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고용관계가 변할 때는 재신청 해야 한다.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청에 신청하며, 동 분야의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노동허가 취득이 어렵다.

라. 노동관련 통계

독일 사무직 월평균 임금 (제조업, 상업, 금융업)

(단위: 유로)

	독일전체	서독	동독
2006	3 510	3 595	2 679
2005	3 452	3 538	2 626
2004	3 384	3 470	2 572
2003	3 304	3 389	2 511
2002	3 198	3 285	2 415
2001	3 079	3 167	2 321
2000	2 984	3 071	2 242
1999	2 898	2 984	2 184
1998	2 814	2 899	2 122
1997	2 746	2 832	2 061
1996	2 688	2 778	1 993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업데이트 시기: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사무직 남/여 월평균 임금 (제조업, 상업, 금융업)

(단위: 유로)

	남		여	
	서독	동독	서독	동독
2006	3 964	2 981	2 850	2 327
2005	3 909	2 925	2 799	2 283
2004	3 847	2 881	2 738	2 229
2003	3 767	2 823	2 667	2 176
2002	3 665	2 718	2 582	2 095
2001	3 542	2 613	2 499	2 024
2000	3 443	2 527	2 417	1 957
1999	3 353	2 469	2 342	1 904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업데이트 시기: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사무직 지역별 월평균임금 (제조업, 상업, 금융업)

(단위: 유로)

지역		2005년	2006년
서독	바덴-뷔르템부르크	3 655	3 719
	바이에른	3 613	3 670
	서베를린	3 396	3 467
	브레멘	3 561	3 620
	함부르크	3 775	3 858
	헤센	3 722	3 800
	니더작센	3 265	3 30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 465	3 508
	라인란드-팔츠	3 387	3 454
	자알란드	3 208	3 239
	슐리스빅-홀슈타인	3 237	3 283
	동베를린	3 228	3 317
동독	브란덴부르크	2 650	2 687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2 395	2 460
	작센	2 590	2 649
	작센-안할트	2 611	2 671
	튀링겐	2 532	2 661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주: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생산직 시간당 평균임금 (제조업)

(단위: 유로)

	독일전체	서독	동독
2006	15.55	16.20	11.44
2005	15.45	16.09	11.32
2004	15.24	15.89	11.13
2003	14.93	15.56	10.89
2002	14.56	15.17	10.66
2001	14.23	14.86	10.38
2000	13.98	14.64	10.15
1999	13.60	14.27	9.94
1998	13.24	13.92	9.72
1997	12.97	13.63	9.56
1996	12.76	13.46	9.36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주: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생산직 월평균 임금 (제조업)

(단위: 유로)

	독일전체	서독	동독
2006	2 582	2 669	1 994
2005	2 542	2 626	1 960
2004	2 507	2 594	1 920
2003	2 460	2 546	1 874
2002	2 396	2 480	1 833
2001	2 354	2 440	1 795
2000	2 320	2 409	1 759
1999	2 249	2 340	1 728
1998	2 196	2 285	1 691
1997	2 145	2 234	1 657
1996	2 111	2 202	1 626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생산직 남/여 월평균 임금 (제조업)

(단위: 유로)

	남		여	
	서독	동독	서독	동독
2006	2 754	2 071	2 055	1 611
2005	2 712	2 036	2 024	1 586
2004	2 681	1 994	1 997	1 555
2003	2 634	1 946	1 956	1 515
2002	2 568	1 902	1 903	1 481
2001	2 531	1 863	1 870	1 439
2000	2 500	1 822	1 844	1 411
1999	2 427	1 784	1 792	1 368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생산직 지역별 시간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제조업)

(단위: 유로)

지역		2005년		2006년	
		시간당 평균임금	월별 평균임금	시간당 평균임금	월별 평균임금
서독	바덴-뷔르템부르크	16.57	2 726	16.72	2 760
	바이에른	15.52	2 538	15.63	2 568
	서베를린	15.89	2 575	16.08	2 621
	브레멘	17.94	2 820	18.05	2 841
	함부르크	17.70	2 888	17.95	2 953
	헤센	15.98	2 609	16.03	2 642
	니더작센	16.47	2 599	16.46	2 62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5.89	2 616	16.07	2 677
	라인란드-팔츠	15.70	2 597	15.95	2 666
	자알란드	16.60	2 759	16.89	2 831
	슐리스빅-홀슈타인	15.24	2 494	15.33	2 533
동독	동베를린	13.70	2 322	13.83	2 356
	브란덴부르크	11.96	2 046	12.10	2 09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11.39	1 973	11.49	2 013
	작센	11.11	1 924	11.21	1 953
	작센-안할트	11.52	2 010	11.65	2 046
	튀링겐	10.84	1 883	10.97	1 911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2007년 6월 (2007년 12월 기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제조업 직종별 시간당 평균임금

(단위: 유로, %)

	2002 평균임금	2003 평균임금	2004 평균임금	2005 평균임금	2006 평균임금
평균	14.72	15.09	15.40	15.60	15.74
식품·음료	12.38	12.70	12.94	13.12	13.27
담배	15.70	16.05	16.53	16.24	16.03
섬유	11.11	11.25	11.56	11.59	11.69
의류	10.09	10.25	10.45	10.55	10.86
잡화	10.28	10.50	10.57	10.60	10.71
목재	12.42	12.56	12.74	12.75	12.78
종이	14.18	14.53	14.84	15.00	15.28
출판	16.19	16.39	16.49	16.56	16.41
석유	18.14	19.00	19.40	19.35	19.82
화학	15.54	15.85	15.93	16.13	16.24
고무/플라스틱	13.06	13.34	13.52	13.69	13.80
비금속제품	12.96	13.29	13.44	13.51	13.66
금속	15.93	16.23	16.63	16.85	17.23
기계류	15.49	15.92	16.32	16.55	16.73
사무기기/컴퓨터	13.49	13.59	13.41	13.40	13.45

자료원: ILO Labour Statistics 2006, 2007년 12월(07년 12월 기준, 2006년 통계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 파업참가 종업원수, 파업휴무 일수

(단위: 1000)

	파업참가 종업원수	파업휴무 일수
2006	169	429
2005	17	19
2004	101	51
2003	57	163
2002	428	310
2001	61	27
2000	7	11
1999	199	79
1998	4	16
1997	14	53
1996	166	98

자료원: 독일연방노동부(BMAS), 2007년 12월

주: 2007년 12월 기준 2006년 통계가 가장 최신 수치임

독일의 노동시장 전반

지수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인구(1,000명)	38,752	38,917	38,330	38,910	40,231
실업률(%)	9.8	10.5	10.6	11.2	9.8
임금상승률(2000년=100)	105.7	108.0	109.5	110.7	120.1
주당평균 근로시간(제조업)	38.2	38.0	37.9	37.9	38.0

자료원: 연방 고용주협회 홈페이지(www.bda.online.de), 독일노총 홈페이지(www.dgb.de), 독일연방통계청(www.dstatistics.de)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마. 노동관련 유의 사항

독일은 타 국가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이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몹시 어려우므로 채용 시 주의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독일 노동자들은 노동법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8. 조세제도

가. 조세 정책

독일의 기업 조세 부담률은 높은 편으로, 2007년 기준 독일의 법인세율(단순 법인세 뿐 거래세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의미)은 38.7%로 EU의 평균 31.7%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유럽 평균 법인세는 1%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1.2% 인상되었다. 외국 기업들은 독일에서 법인세 포함 총 41~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태리의 41%, 벨기에의 40%, 프랑스의 36%, 네덜란드의 35%, 영국의 30%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독일 정부는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을 발표한 바, 감세로 인한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도까지 독일의 간접세(부가가치세)는 EU국가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6%로서 2007년 1월부터 EU 국가들 간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으로 인해 3% 높은 19%로 인상되었다.

한편 구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특별 공제와 영업세 및 재산세 면제조치 등 다양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동독 지역 5개 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독일 국내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물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나. 세제 개황

독일의 세금 적용은 연간 5만 유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혼여부, 자녀유무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의 평균적으로 35~50%의 직·간접세(소득세, 연금, 건강보험 등)를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세제 별 개황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각 주 공통으로 법인세, 영업세(거래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연방세로서 보험세, 담뱃세, 석유세 등이 간접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 자동차세 및 토지취득세가 있다. 그 외에도 관세 및 지자체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배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또한 귀속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23.9%, 최고 53%이며,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영업세의 경우도 일종의 법인세로 볼 수 있으며, 각 주, 도시마다 영업세의 기준이 상이하며 차이가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의거,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비용(연금, 실업급여 등) 절감 등이 정책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가세의 경우, 서적과 식료품(음료수 제외)에 부가되는 7%의 부가세는 변동이 없으나, 2007년 1월을 기점으로 부가세가 현행 16%에서 19%로 인상되었다.

다. 근로자 사회보장

독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부대비용이라고도 불리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5대 사회보장제도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부양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각 50%를 분담해야 한다. 월급여 대비 평균적으로 연금보험은 19.9%, 실업보험 4.2% 및 부양보험은 1.7% 정도이며, 의료보험은 공.사보험에 따라 상이하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Agenda 2010을 통해 실업급여 기간 단축, 실업수당과 연금제도의 통합,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2008년부터 일련의 조세제도 개혁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먼저 실업보험이 급여대비 3.3%로 낮아진다.

라. 2008년도 변경 주요 조세제도

○ 법인세 인하

- 법인세율이 15% 인하(solidarity surcharge 5.5% 별도)되어 총 법인세율은 15.8%로 낮아지고 영업세(거래세)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부담률은 약 29.8% 정도로 추정
- 외국법인의 독일 원천 유동자산의 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 원천징수세율도 동 비율로 감소

○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 도입

- 연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Dpreciation, Amortization)의 30%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 단 예외 규정이 존재

○ 영업세(거래세)의 손금 산입 제한

- 영업세 납부 금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무책임이, 국내 납부법인이 독일 세무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자소득세로 완전히 해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 부담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기타 부수적인 기능에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시켜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만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2007.6))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독일의 외환관리 정책

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1999년 1월부터 가입국에 대한 외환관리를 맡고 있어, 독일 정부 별도의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12개 Euro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주재하고 있는 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개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협의체를 통하여 외환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유로화의 경우, 2007년 2분기 기준 1유로 = 평균 1.3 달러 이상으로 원화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달러대비 유로화의 초강세로 인하여 원화 환율대비 유로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유로 대 달러화 환율

연도	기준월	환율
2002년	10월	1:1
2003년	1월	1:1.0589
2004년	1월	1:1.2613
2005년	1월	1:1.2614
2006년	1월	1:1.2069
2007년	1월	1:1.2134
2007년	6월	1:1.3451

나. 과실 송금

독일은 해외로의 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의 경우, 외환경제규정(AWV-Aussenwirtschaftsverordnung) 26조 신고관련 조항에 의해 1만2천5백 유로 이상의 해외 송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독일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U 권역 내의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을 그 보고 대상으로 한다. 동 보고는 원칙상 금융거래자가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한다. 보고양식은 독일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해외발 국내 입금인 경우와 해외향 송금인 경우에 대해 각각 Z4 와 Z1 서식을 사용토록 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송금계좌와 수금계좌 및 계좌 소유인의 이름과 주소, 송금 목적 등이 기재된다.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자금 및 해외 대출에 관한 자금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입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하면 1만5천 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권으로 입출금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동 입출금 인의 신분증을 확인신분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자금 조달

투자 기업들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설립 시 독일 은행의 평균 대출 이자는 4.5~10% 정도이다. 대출 이자는 각 개별 기업의 신용, 규모 및 자본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외국 기업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위치하는 업체에 대해 대출이자율 5.5%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하려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자료원: Commerzbank, Deutsche Bundesbank 및 무역관 자체수집정보 종합)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독일 시장의 특성

독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고 EU 내에서는 GDP를 기준으로 약 20 %를 차지한다. 독일 시장은 대체적으로 자유 시장 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CeBIT, Medica, Hannover 산업 박람회,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통해 국제 교역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인으로서는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을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 보장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다방면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애쓰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화학, 첨단기술 분야이다. 하지만 소매 분야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다수의 주요 제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높은 실업률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시장에 진출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기술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독일 시장은 I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며, 또한 EU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보급 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멀티 미디어 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 시장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독일 시장은 가격 보다는 품질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인 것이 특징이다.

독일 시장의 양상은 중앙 집중적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취향과 이해에 따라 매우 다분화 되어있다. 따라서 시장 개척 시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독일인은 소비에 있어 무엇보다도 실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며 좋은 제품을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한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국가의 높은 경제력에 비해고가 명품 시장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나. 독일에서의 한국 상품

독일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독일 바이어들은 기존에 신뢰를 갖고 있는 상품 및 제조사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 한국 상품이 기존의 시장 진출 제품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삼성, LG, SK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각각의 주력 분야에 있어 독일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독일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여타의 해외 지역에서 선전 중인 한국 상품들은 독일에도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독일의 유통채널은 제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유통 과정에서의 주체는 한국 및 여타의 산업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제조업체, 유통상, 수출입 업자, 소매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은, 해당 분야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독일 업체들을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고, 대표적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시장 추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분야별로 협회가 발달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하고 협회를 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독일은 최근의 경제 회복과 그에 따른 소비 붐으로 경제 전반이 활황세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진출할 여지도 기존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의 IT 강국으로서 인터넷 인프라 및 저변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IT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관리 및 웰빙 추세에 따라 의료 및 스포츠 관련 제품들도 독일 시장에서의 유망상품들로 분류된다.

다. 유망 상품

KOTRA 간행물인 ‘2007 미리보기 올해 이런 아이템이 히트한다’의 독일 편에 따르면, MP3, 광디스크, DMB용 휴대폰,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의 IT 제품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히트 상품들과 히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MP3 플레이어 ‘아이팟 나노’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 및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특히 청소년 층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 광디스크 ‘Blue Ray Disk’

동 제품은 고화질 비디오 디스크 레코더를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저장매체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날로 높아지는 미디어 분야의 수요에 힘입어 기존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노키아의 DMB용 휴대폰

현대 독일 몇몇 대도시에서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DMB용 방송이 조만간 지상파 방송으로 독일 전 지역에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DMB용 휴대폰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 브랜드 또한 확고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 USB메모리 ‘Maxell M-Drive Pocket’

대용량 USB 메모리는 중요 데이터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 제품은 작고 가벼운 8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저장 제품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며 가격도 동류 제품에 비해 높지 않아 인기가 예상된다.

□ 캐논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2005년부터 독일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했다. 캐논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의 광학 카메라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갔고 우수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자동차 ‘Mercedes C-Klasse’

동 제품의 경우 경쟁 차종에 비해 뒷좌석 공간이 넉넉한 점과 핸들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계에서 대표 차종으로 인정 받는 동 제품은 정숙하고 안전한 이미지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 Polar 맥박 측정용 시계

독일의 건강 관리 및 웰빙 추세에 따라 맥박 측정용 시계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Polar 제품의 경우 아디다스와의 합작 개발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가격은 동 제품류에 비해 매우 높지만 품질과 기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 건강·웰빙 히트 상품

	모델명	Exel Nordic walking Sticks
	회사명	Exel
	가격대	평균 50~100 유로
	브랜드	상
	기능	노르딕 워킹용 스포츠용품
	선호계층	20~50대
	원산지	핀란드
	유통구조	스포츠 용품점, 백화점

○ 히트 요인

- 노르딕 워킹은 중부 유럽에 소개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최근 독일에서는 최고의 히트 스포츠로 등극하였다. 노르딕 워킹은 사시사철 가능한 스포츠로, 지난 몇 년 사이 독일 내 노르딕 워킹 관련 동호회 및 강습소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 노르딕 워킹은 전체 근육의 90%를 사용하게 해 일반 워킹에 비해 50% 이상으로 효과적이며, 독일 내 노르딕 워킹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3백만 명에서 6백만 명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는 50대 이후 계층에 인기가 높다.
- 엑셀(Exel) 사의 노르딕 워킹 제품의 기능성 및 정교함은 그 어느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어, 독일 내에서도 판매율이 최고이다.

	모델명	Power-Plate Next Generation
	회사명	Power Plate
	가격대	5,000 ~ 10,000 유로
	브랜드	중상
	기능	진동 효과를 이용한 스포츠 용품
	선호계층	20 ~ 40대
	원산지	네덜란드
유통구조		스포츠용품점, 대리점

○ 히트 요인

- 최근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슬로우 운동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Power Plate 사에서 진동 효과를 이용해 여러 동작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동제품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부터 헬스클럽에 판매된다.
- 한 예로 독일 내에만 100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헬스클럽인 Fitness Company는 지점마다 5개 이상의 Power Plate 제품을 비치, Power Plate 전문 강사도 따로 두고 있다.

	모델명	Visiball Golfball Sunglasses, V-100
	회사명	Visiball
	가격대	30~50유로
	브랜드	중상
	기능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수 안경
	선호계층	20~40대
	원산지	미국
	유통구조	골프 전문점, 스포츠 용품점, 대리점

○ 히트 요인

- 골프용 선글라스 또는 안경 가운데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Visiball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 특수 안경은 어두운 잔디나 땅에서도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작됨
- 동 제품은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 히트 상품으로 꼽히고 있음.
- 현재 독일 내 골프 애호가들은 400만 명 정도이며, 가끔 치는 사람들은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됨. 매년 독일 내 골프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골프 제품 가운데에서도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음.

	모델명	Puma Ballerina
	회사명	Puma
	가격대	40 ~ 70 유로
	브랜드	상
	기능	기능성 스포츠 신발
	선호계층	10 ~ 20대
	원산지	독일
	유통구조	스포츠 용품점, 신발가게, 백화점

○ 히트요인

- 독일 신발 산업의 국내 업체 수는 감소 추세이나, 수입으로 인해 신발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능성 신발이 압도적인 증가세에 있음.
- 최근에는 스포츠용 기능성 신발이 그 사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반 운동화나 신발의 판매 실적을 능가함. 특히 푸마(Puma)에서 출시한 발레리나 슈즈형 신발은 올해 독일 여름에 판매된 신발 가운데 히트 상품으로 꼽힘.

자료원: KOTRA 간행물 '2007 미리보기 올해 이런 아이템이 히트한다', 무역관 보유 자료

2. 물가정보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인근국보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싸, 식당 음식, 택시 운임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체감 물가가 한국보다 높지만, 그 외 과일, 공산품 등의 경우 유럽 단일시장 체제로 인근 회원국으로부터 무관세 물량이 공급되어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다음의 정보는 독일 함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함부르크에는 KOTRA 및 다수의 한국 지사가 나와있는 상업 중심 도시 중 하나이고, 물가 수준 또한 여타의 상업 중심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내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안내 가격은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시기와 기타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단위: 유로)

구분	품목	가격
의류	양복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 형성, 150 - 500
	와이셔츠	20 - 60
식품	라면 1개	0.75-0.95
	쌀 10 kg	12.50
	빅맥 햄버거 1 개	2.99
	맥주 1캔	수퍼 가격, 0.5 리터 0.80
주택	중급아파트(방 3개/ 함부르크 경우 월 임차 비용)	1100 - 1500
잡화	구두	80 - 110
통신	핸드폰	요금제에 따라 다양하나 V통신사의 비즈니스 요금제의 경우 분 당 통화료 0.14
	인터넷	월 30 - 40
자동차	중급 세단 VW의 PASSAT	2300 - 2500
	휘발유	리터당 약 1.3
대중교통	지하철 기본 요금	함부르크의 경우 시내 구간 이용 시
	시내버스 기본 요금	1회 당 약 2.50
	택시 기본 요금	기본요금 2.20, 이후 Km 당 1.67 추가
레저 및 오락	골프장 그린피	55 - 60
	골프채	채 1개 대여 시 약 3 세트 대여 시 약 30
	영화 관람료	7 - 8
호텔	특급호텔	약 140 이상, 시기에 따라 매우 다름
	중급호텔	약 50 이상, 시기에 따라 매우 다름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바이어와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시장동향, 기술 동향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중의 하나이다.

해외전시회정보는 KOTRA 운영 한국전시포탈, 독일 전시협회 (AUMA), 한국전시산업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전시포탈: <http://www.gep.or.kr>
- 독일전시협회: <http://www.auma.de>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http://www.kei.or.kr>

2) 시장개척단 참가

KOTRA,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해준다. KOTRA 해외 무역관 에서 사전에 관련 바이어를 접촉, 단체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해주므로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마케팅 방법이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해당 정보는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의 초기화면 상단에서 ‘시장개척 사업’ 메뉴의 ‘시장개척단’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KOTRA 해외조사대행 이용

해외조사대행이란 KOTRA의 해외조직망을 통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는 물론 관련 제품의 해외시장정보 (수출입통계, 유통구조, 시장동향 등)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거래선 발굴조사는 현지 수입상의 유선상으로 표명하는 수입 관심도와 현지 시장성(marketability)을 개괄적으로 조사해주는 [관심바이어조사]와 [공급선발굴조사], 해외 무역관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1차 상담까지 대행해주는 [관심바이어상담]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해당 정보는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의 초기화면 상단에서 ‘시장개척 사업’ 메뉴의 ‘해외시장조사’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수수료	기간	비고
거래선 발굴조사	관심 바이어 조사	150,000원~270,000원	15일	차등책정
	공급선 발굴			
	사이버 상담	50,000원/ 1개 바이어	15일	바이어당 최대 2회 제공
시장동향 조사	수요, 수출입, 생산, 경쟁, 가격,유통구조 등	70,000원~160,000원/항목당	15일	차등책정
해외진출 조사대행	해외투자합작 파트너 발굴	150,000원~270,000원	15일	차등책정
	해외투자정보사전조사	70,000원~160,000원/항목당	15일	차등책정

4) 수출상품 전문카탈로그 광고 게재

Korea Trade, Korea Trading Post, Buyers Guide 등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에 자사 제품 광고를 게재하고 홍보하여 신규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다.

- Korea Trade: KOTRA 발간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로 전세계 10여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배포된다.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main/kor_trade/kor_trade.jsp
- Buyers Guide: 바이어스 가이드사 발간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이다.
- 홈페이지 http://www.buyersguide.co.kr/bg/sub02_1.html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문 검색 사이트 활용

Kompass 등 기업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 및 CD자료를 이용하거나 e-비즈니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다.

- WLW : <http://www.wlw.com> 유럽 15개국 40만 여 개사 정보 검색 가능
- EuroPages: <http://www.europages.com>
- KOMPASS: <http://de.kompass.com>
- 독일 전화번호: <http://www.gelbeseiten.de>
- Firmenwissen: <http://www.firmenwissen.de> (유료 회원제)

2) 기업 신용 파악

해외 시장 개척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의 신용 상황은 늘 가변적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정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정보 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기업 신용정보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크레디트레폼(Kreditreform): <http://www.kreditreform.de>
- Dun & Bradstreet: <http://dbgermany.dnb.com/English>

3) 사례로 본 기업 정보 검색 방법 및 순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사전 (독일어-영어)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과 거래하고 잇는 기업 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는 Sudkorea(독일어로 한국을 의미)라고 띄어 쓰지 않고 입력해야 한다. 참고로 함부르크 소재의 기업 검색 방법을 하기와 같이 안내한다.

-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hk24.de>를 접속한다.
- 초기 화면 상단에 있는 Firmen (기업) 클릭
- Datenbank Hamburger Unternehmen (함부르크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클릭
- hier (이 곳)클릭

-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빨리 찾기(Schnellsuche)를 선택 후 검색창에 회사명이나 상품명을 입력한 후에 Suchen (찾기)을 클릭한다.
 - Komfortsuche(확장검색)를 선택 후 기업형태, 산업분야 등의 코드 입력 후 Suchen (찾기)을 클릭한다.
 - Laendersuche(국가명으로 찾기) 선택 후 국가명을 입력한 다음 Suchen(찾기) 클릭.
 - Warensuche(상품명으로 찾기) 선택 후 상품명을 입력하고 Suchen (찾기)을 클릭한다.
 - 독일어-영어 사전 사이트 주소는 www.leo.org이며, 접속하여 Deutsch - Englisches Wörterbuch를 클릭하면 된다.

4) 전시회 사이트 방문

독일 전시회 참가 업체 목록을 해당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사제품 관련 수입 업체 소개를 부탁하는 것 또한 해당 분야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http://www.auma.de> (독일전시협회 사이트)
- <http://www.fkm.de>(각종 전시회 통계정보 제공)

5) 독일 이트레이드 센터 (e-trade-center) 활용

KOTRA에서 운영하는 Buykorea와 같이 독일에도 수출입업체를 위한 이트레이드 센터가 있다. 홈페이지는 www.e-trade-center.com이다. 이트레이드 센터에서는 독일 기업정보, 전시정보는 물론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트레이드 센터에서는 관심 독일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무료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잠재 고객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12개 협력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트레이드 센터는 2001년 독일 상공회의소,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 외국 독일 상공회의소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되었으며 현재는 12개 관련 데이터 베이스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인콰이어리가 협력 기관 어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이 되더라도 e-trade-center에서 열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e-trade-center만 방문하면 된다. e-trade-center 웹사이트 화면은 검색, 인콰이어리 등록, 마켓 플레이스, 협력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콰이어리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접속(www.e-trade-center.com)
- 화면 상단 E-TRADE-CENTER-ENTRY를 클릭한 후, 화면 하단의 For the questionnaire please click here!를 클릭
- 데이터 입력 후 Forward를 클릭하면 인콰이어리가 등록됨

(자료원: 무역관 자체 정보)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바람직한 접촉방법

- 바이어에게 최초의 거래제안서를 송부할 때는 이메일 보다는 팩스, 편지 (가장 선호)로 하는 것이 좋음.
- 바이어에게 제품검토를 요청할 경우, 제품카탈로그, 가격표, 거래조건, 제품설명서 등 충분한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효과적임.
- 거래 제의서 등 서류송부 시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송부하면 중간에 분실이 되지 않고 전달이 빨리 됨, 담당자명을 모를 경우에는 purchasing manager를 수신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음.
- 거래 제의, 제품검토 등에는 최소한 1주 이상 거리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시일이 오래 걸림) 이를 감안하여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이어와 유선접촉 시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 12시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적당함 (시차: 7시간) 그 이외의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음.
- 바이어가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품질 테스트 소요시간, 제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소개하고 구매의향을 타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1-2 개월 후에 재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금하게 결과를 독촉하는 서신은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세일즈 출장 시 독일 바이어와의 상담은 대부분 바이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바이어의 개인 스케줄을 고려하여 보통 1개월 전에 상담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협상의 시작

- 협상 초반에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논쟁 가능성이 적은 스포츠, 오락, 비즈니스 이슈 등에 관한 최근 뉴스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독일 바이어들은 이러한 small talk 이후 비교적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강하다. 또한 처음 만난 상대방이 우리측 회사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히 회사를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다. 독일 바이어가 지적하는 한국 업체의 유의 사항

무역관 관리 독일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한국 업체들과의 상담 및 거래에 있어 공통적인 지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담당자가 회사계정 메일이 아닌 야후 등 개인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바이어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짐.
- 담당자의 영어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움.

- 바이어의 이메일 등 제품문의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너무 늦음.
- 민감한 사항임에도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자주 전화하여 업무에 큰 지장을 줌
- 바이어가 사전 예약을 하여 국내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시에도 약속을 어기거나 상담 자체를 지연시켜 나머지 방문일정을 어렵게 함.
- 기술력은 미국, 일본제품에 뒤지고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보다 약함.
- CE 등 각종 인증에 관해 취득 신청 중임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함.
- 독일 바이어와의 협상 시, 경쟁 국가 품목 및 독일 시장 점유에 관한 사전 지식을 습득, 한국 자사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상담시 이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임.

라. 독일 시장특성 및 상관행

- 보수성향이 강한 시장
 - 신용관계를 매우 중시하여 기존 거래선에 집착,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크므로 바이어를 접촉하여 거래제의 및 1차 주문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됨 (일반 소비재 제품의 경우 평균 6개월, Technical한 제품의 경우 1년).
 - 일단 첫 거래가 이루어 지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하며,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경쟁업체가 나타날 경우 기존 거래선에 먼저 합리적 수준의 타협선을 제시하여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거래선을 바꿈.
 - 대형 제조업체, 대형 유통업체 공히 공급선 인콰이어리를 연중 검토하며 적어도 납품일 1년 전에는 구매선을 선정하여 여유 있게 추진함.
 - 일단 성의 있는 거래제의 인콰이어리는 담당자가 차년도 구매 선정 시 참고코자 잘 보관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를 수시로 접촉하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외형보다는 실리를 추구함
 - 합리적 구매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사여구로 장식된 화려한 카탈로그보다는 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제품소개에 신뢰감을 부여함.
-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인식 확실
 - 전세계적인 가격경쟁 격화로 브랜드인지도가 없는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진출의 관건임.
- 수입업자 유형별 구매행태
 - 대형제조업체의 경우 OEM 완제품 또는 부품 구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중국산등 단순 저가품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더라도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선호함.
 -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가격파괴전략에 버티려면 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납품기일 준수, 소량 수시 인도조건, 불량품 완전보상 등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하나 연간기준으로 볼 때 대량납품이 가능함.
 - 전문유통상의 경우, 고객서비스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차츰 민감해지고 있는 추세.

마.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 계약내용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금 결제 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금 결제조건이 DDP (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 (2006년 5월 현재 16%, 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Sales agreement) 상에 부가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
 - 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에서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제도’ 등을 잘 활용,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
 - 중재지는 협상력의 우위에 따라 수입자는 대부분 자국 중재지를 선호하나 제 3국으로 중재지를 지정할 수 도 있다. 중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방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 추천 중재조항 조문, Arbitration (중재지를 서울로 한 경우)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자료원: Business Etikette in Deutschland, 대한상사중재원, 무역관 유선 자체 조사)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개요

독일에 지사 및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업체에 문의한 결과 독일에서 사업 수행 시 하기의 애로 사항들을 답변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자 비용 또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언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꼽혔다. 예컨대, 독일어나 독일 물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 여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사후 파악되는 경우도 언어적인 문제의 한 예에 해당된다.

독일의 근로자 중심의 근로법 또한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병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발병 시, 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병가 기간 동안 고용자 측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지 제도를 악용하여 병가 및 휴가가 남발되는 경우 난감하다고 한다.

한국으로의 송금 시 금융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체계적 송금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독일과 한국 본사 간의 대금 전달에 비용

부담이 있다고 한다. 독일에 여러 한국의 은행 지점들이 진출해 있으나, 이들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독일 업체에서 한국으로 대금 송부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

독일은 현재 EU 가입국으로 EU에서 결정한 각종 규제들이 독일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발효 시기 및 시행 방법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라별로 다르고 통일성이 없어 독일에 관한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 점도 번거로운 점으로 꼽혔다.

나. 구체적 사례

□ 해당 분야: CE 인증, TUEV 인증

○ 비관세장벽 유형: 기술, 표준 관련

○ 비관세장벽의 내용

- 독일은 수입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제도는 없음. 다만 유럽연합 지침의 안전규정(EU Directives) CE 마크 획득이 의무인 품목이 있으며, 동 검사 및 시험은 독일 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음.
- EU 지침의 안전규정에 따라 독일 내에서도 소비자용품 안전법(Geraetssicherheitsgesetz: GSG) 충족 기준이 있어, 동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품목에 따라 TUEV 인증 및 GS 마크를 받을 수 있음.
- 복잡한 기기일수록 인증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의 관련 제품 수출에 애로사항 발생. 특히 전자기기, 안전관련 장치 관련 수출업체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상기 2개의 대표 인증은 법률적으로는 비강제인증이나, 유럽연합 및 독일의 안전 규정을 준수한 품목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사고 발생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강제인증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KS 마크 등과 CE / TUEV / GS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 또는 동 인증 취득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

□ 해당 분야: 연락사무소 파견직원 비자 연장

○ 비관세장벽 유형: 비자

○ 비관세장벽의 내용

- 현지 시장 파악 및 고객 확보를 목표로 일차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게 되며, 시장 동향을 파악 후 법인 전환을 하게 됨. 법인 전환이 가능한 기반이 갖추어지는 데는 통상 4-5년이 소요된다고 함.
- 현재 함부르크 주정부에서는 연락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하여 통상 1번 연장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3년이 넘을 경우 법인 전환을 '강요'하는 실정임.
- 최근에 연락사무소 지위를 악용,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업활동을 한 중국기업이 여러 적발되어 함부르크에서는 연락사무소 파견직원 비자 기간을 통상 2년으로 감축할 가능성 있음.

□ 해당 분야: 자동차 부품 (쇠 및 알루미늄) 환경규제

○ 장벽 유형: 환경 규제

○ 장벽의 내용

- 독일 완성차 업체의 경우, EU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Durability Spec(제품을 소금물에 담가 녹이 생기는지 측정)의 기준이 까다로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480시간이 기준이나 독일 완성차 업체의 경우 720시간을 요구함.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 홈캐스트 유럽법인

- 소재지: Sulzbach (프랑크푸르트 인근)
- 투자형태: 법인
- 진출시기: 2004
- 업종: 디지털 위성수신기
- 매출규모: 2천만불 (2006년 기준)
- 종업원: 본사직원 1명, 현지직원 7명
- 경영패턴
 - 한국 홈캐스트 본사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독일에서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구입한 후 조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A/S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부 하청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테크니커가 일년에 3번씩 방문하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판매 (목표) 지역은 독일 및 유럽 전체이다.
- 현지법인 성과와 요인
 - 고품질에 증가의 가격 및 서비스로 셋탑박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여 독일 진출 3년 만에 연간 매출액 2천만불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다. 2007년부터는 직접 AS를 실시함으로써 작년 대비 높은 시장점유율 기대하고 있다.

□ 한국타이어 독일법인

- 소재지: Neuisenburg (프랑크푸르트 인근)
- 투자형태: 법인
- 진출시기: 1986 (구주본부는 2003년도에 진출)
- 업종: 타이어
- 수출실적: 8천 3백만 유로 (2006년 기준)
- 종업원: 본사직원 4명, 현지직원 30명

○ 사업성과

- 전세계 타이어 기업 Top 10 브랜드 중 2006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국타이어는 전년대비 1순위 상승한 8위를 기록하였다. 한국타이어의 성장률은 11.2%로 전세계 타이어 기업의 평균 성장률인 3.1%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 2007년도 독일 소비자 품질평가에서 한국타이어의 여름용 타이어는 콘티넨탈 (Continental)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현지법인 성과 요인

- 철저한 현지화 전략.

유럽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및 입증된 기술/제품력을 기반으로 한국타이어는 2012년 글로벌 탑 5위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헝가리 공장을 비롯한 유럽 내 Home Market을 구축하여 향후 한국타이어는 생산, 판매, 물류, 마케팅, 제품 개발 및 OE 사업이 유럽지역 내에서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계획이다.

- 연구개발에 투자

한국타이어는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유럽에 R&D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에 따른 제품을 개발 및 판매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매출 대비 약 4.5% 이상을 제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나. 실패 사례

□ 삼성 SDI

- 소재지: 베를린
- 투자형태: 법인
- 진출시기: 1992
- 업종(품목): 제조 (브라운관)
- 종업원수: 본사직원 13명, 현지직원 880명

○ 투자진출 경과

- 삼성 SDI 베를린 공장은 1993년에 파산상태에 놓여있던 구동독기업인 WF를 거의 무상으로 인수하여 설립되었으며, 진출 시 베를린 시와 유럽 연합으로부터 최소 5년간 공장 유지 조건으로 1999년 말까지 약 3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삼성 SDI 독일 법인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베를린 소재 공장을 폐쇄하고 헝가리로 공장을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베를린에서의 생산업무는 중단되었으나, 독일 법인의 영업업무와 연구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철수 원인 및 시사점

- 철수 원인은 유럽 내 기존 브라운관의 수요 감소와 중국, 인도 등 저임금 경쟁국의 생산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등 생산 경쟁력 상실 등으로 분석된다.
- 베를린 시, 정부 및 노조측에서는 기존 브라운관의 수요 감소는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 새로운 전략 품목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누차 지적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 측이 베를린 시의 보조금을 받고도 채산성 있는 품목에 투자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공장 최소 5년 유지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동유럽으로 공장이전을 해버려, 직장을 잃은 700명 가량의 현지 직원들 외에도 베를린 시, 정부 및 금속노조의 비난을 받고 있다.

□ 한솔 LCD 구주본부

- 소재지: 프랑크푸르트
- 투자형태: 법인
- 진출년도: 1998
- 업종(품목): 무역업 (모니터, 디스플레이)
- 종업원수: 본사직원 2명, 현지직원 5명
- 투자진출 경과
 - 한솔 LCD 구주본부는 1998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구주본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소규모 형태로 운영해왔으나, 2005년도에 법인을 폐쇄하였다.
- 철수 원인 및 시사점
 - LCD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중국 및 대만 제품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밀려 결국에는 매출 부진으로 철수하였다.

다. 외국기업

□ 모토로라

- 소재지: 베를린, Flensburg, Taunusstein, 뮌헨(Munich), Bad Salzdetfurth
- 투자형태: 법인
- 진출년도: 1986 년(Taunusstein)
- 업종(품목): 정보 통신 (휴대폰 등 통신기기)
- 종업원수: 약 2,500 명
- 투자진출 경과
 - 1986 년 최초 진출 이후 2000년 베를린에 진출 하였음. 각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통합하여 독일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성과요인
 -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이를 잘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베를린: 모토로라의 디지털 통신 시스템(TETRA)의 개발
 - 타우누스슈타인(Taunusstein): 물류 센터 소재.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물류 및 서비스를 총괄
 -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을 감안한 글로벌 전략 추진

□ 월 마트

- 투자형태: 법인
- 진출년도: 1998 년
- 업종(품목): 유통
- 투자진출 경과
 - 진출 이래 현지 유통업체를 인수하여 매장을 늘림. 2005년도에 약 20억 유로의 매출 기록. 2006년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 Metro에 매장 판매 및 임대하고 철수
- 철수 원인 및 시사점
 - 노조와의 마찰: 미국식 경영의 도입을 강요함으로써 노조와 마찰을 일으킴.
 - 독일 소비자의 현지 브랜드 선호: 보수적인 독일 소비자의 경향을 바꾸지 못 함
 - 현지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함: 독일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 보다 전문 소매점을 선호, 또한 독신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

(자료원: Invest in Germany 자료 및 무역관 자체조사)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거주 등록

1) 거주신고: Anmeldung

주거지가 정해지면 주재원 및 가족은 관할 외국인관청에 소정양식에 따라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거주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본적, 가족관계(기혼여부), 종교관계, 취업여부 등 전반적인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신고서는 각 1부가 외국인 관서, 노동부 등 상급관청에 송부되며, 독일 생활 중 이 기록에 의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행사를 하게 됨으로 기록에 신중을 요한다. 특히 종교란에 종교(기독교)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면 소득세의 9% 정도(주마다 상이함)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된다.

2) 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 Aufenthaltserlaubnis & Arbeitsgenehmigung

3 개월 이내 체류인 경우 별도 비자 등이 필요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 비자발급은 한국 소재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의 외국인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재원 들은 독일 입국 후 비자를 받고 있다.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원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동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가 발급되면, 동 노동허가기간에 상응하는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체류비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발급되나 간혹 동 기간 중 발급이 지연되어 임시비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비자 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는 27개 항목으로 체재 예정기간, 체류지, 종사업무 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청에서는 최초 신청 시 통상 1년 기간 동안의 노동허가를 발급하여, 이후 갱신 신청 시 2년 또는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또한 독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3) 세금카드: Lohnsteuerkarte

독일에서 취업하는 모든 직장인은 거주지 관할시청으로부터 세금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세금 카드에 의하여 회사는 매월 직원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관할 시청은 매 연말경에 익년도 세금카드를 집주소로 우송해 주는데 행정적인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Einwohnermeldeamt에 가서 발급수속을 해야 한다.

나. 거주지

1) 선호 지역

독일인들은 산이나 강과 인접하여 경치가 좋고, 수돗물에 석회석이 많지 않은 지역 또는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교포들이나 주재원들은 독일인들과

달리 우수한 학군, 인터내셔널스쿨 인근 지역을 거주지 선택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한인들은 인터내셔널스쿨 인근 지역, 우수한 김나지움(고등학교) 인근 지역에 대다수 주택을 구입, 임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인들이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아파트 또는 Reihen 하우스(유사한 형태의 집이 일렬로 배열된 주거구조) 등을 선호한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의 대부분의 경우 도시 내에 거주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 주재원 및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대부분 시내보다는 주변 환경이 좋고 입주가 용이한 인근 위성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내셔널스쿨 인근지역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료 또한 높은 편이다.

2) 주택 확보 방법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하여 매매 또는 임대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의 독일 대도시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독일어로 인한 의사 소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쉽게 물색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주 두 번 정도 게재되는 지역 신문의 주택 매물 광고를 보고 직접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접촉,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접촉, 집을 구할 수도 있다.

3) 임대료 및 수수료

독일 내 주택 임차료는 위치, 노후 정도, 가구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도시 인근의 경우에는 보통 1s/m당 15~20유로 수준을 보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4개 정도(거실 및 침실 3)가 필요한데 면적은 대략 110~120s/m정도고, 월 임차료는 관리비 일부가 포함되는 계약(Warmmiete)을 체결하면 1,600 - 2,300유로 수준이다.

임대료는 매월 임차인 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Dauerauftrag)로 처리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임대 주택 입주 시에는 보통 월 임차료 3개월 분의 보증금을 현금, Gesetzliche Mietkaution이라 명기된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증금은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인출이 가능하며 어느 일방의 요구로 중도 인출할 수 없다. 보증금은 임차 해약 또는 계약 만료 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주인은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 또는 가구 등에 입힌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으로 손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준다. 한국의 복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우 보통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 2달치를 지불한다.

4) 임대차 계약

2001년 9월부터 독일 주택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해지 통고일로부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귀임시기가 되면, 이 계약해지 기간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독일의 경우 임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한국과 달리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 시 가구상태, 주택상태를 주인과 면밀히 검사후 서로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 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입자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에 가입해 두면 세입자의 권익 신장에 용이하다.

다. 교육

1) 교육 체계

독일의 교육과정은 만 6세에 입학하는 초등학교(Grundschule)를 시작으로 중등 교육과정인 Gymnasium까지 13년간이며, 일조의 졸업 시험이자 동시에 종합대학(Universitaet) 입학 자격 시험인 Abitur를 치르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인문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Gymnasium외에 아이의 학업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사의 추천으로 진학하게 되는 중등 교육과정에 속하는 실업학교(Realschule)와 직업학교(Hauptschule)가 있는데, 실업 학교는 10학년, 직업 학교는 9학년까지로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실제 직업 교육(Ausbildung)을 마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졸업 후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연령별 입학가능 현지학교의 종류

구분	나이	학년	졸업시험
Kindergarten	3~6		
Vorschule(Kindergarten)	5~6/7		
Grundschule	6~10	1~4	
Hauptschule	11~16	5~10	Hauptschule 졸업시험
Realschule	11~17	5~11	Mittlere Reife
Gymnasium (Type 1)	11~19	5~13	Abitur
Gymnasium (Type 2)	11~18	5~12	Fachabitur

구분	입학조건	최소수업학기	학위
Fachhochschule	Fachabitur 또는	6학기	Diplom 전공 (FH)
Hochschule,	Abitur 시험합격자	8학기	Diplom전공(U)
	Abitur 시험합격자		
Universitaet, Akademie			M.A (교직 이수자 들에게는 학위가 없음)

- 입학: 독일어로 된 재학 증명서(건강 기록부 첨부하면 좋음)를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확인 받아 거주 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자리가 있을 시 쉽게 입학 가능하다
- 학비: 유치원은 월 100유로 정도이나 Grundschul부터는 전액 무료. 대학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전액 무료였으나 점차 학비를 받는 곳이 생기고 있다.
- 대학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학사 및 석사가 통합된 독일 식 제도만이 있었으나 현재 미국식으로 학사와 석사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대학이 등장하고 있다.

2) 인터내셔널 스쿨

독일 전역에 약 20여 개의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나,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한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입학 정원 초과로 입학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입학
 - 영어로 된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학업
 - 1학년-5학년 (초등부)
 - 6학년-12학년 (중, 고등부)
- 학비: 등록금 500유로, 입학금 130 유로, 수업료 12,000 - 17,000(년간) 등
 - 프랑크푸르트 인터내셔널 스쿨 기준

라. 통신

1) 전화

전화 가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의 전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은 아직도 Deutsche Telekom을 통해 설치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통신 자유화로 인해 독일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전화 비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신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다만 일부 저가 통신의 경우 자사 저가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국제할인 회선 등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화번호는 새 번호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전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전화 가설에 소요 되는 시간은 지역마다, 개 개인별로 상이하여 짧게는 3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무선 전화의 경우에는 Deutsch Telekom계열의 T-Mobile, Vodafone, e-Plus, O2 등이 있고, 연간 계약을 통하여 사용하는 방법 및 Payphone과 같이 사전에 금액을 적립한 후 적립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만, 연간 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전화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2) 인터넷

인터넷의 경우 집에 연결된 선이 일반 전화선인지 고속 인터넷 선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설치 시간 및 사양이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설치 는 전화 설치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짧게는 2주에서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개설과 동시에 또는 전화 설치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에는 전화와 같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독일의 경우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시 한국과 달리 통신회사 직원이 방문 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일자만을 통보 한 후 방문 하는 등 설치 시에 불편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

마. 자동차

1) 자동차 구입

신차의 경우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BENZ, BMW 같은 독일 차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한국 차량도 손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중고차는 개인간의 직거래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또는 2년의 개런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향후 A/S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매장 방문 전 www.adac.de 또는 www.autosout24.de 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독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거주 시에는 독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 면허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바. 은행 구좌 개설

1) 구좌 개설

여권과 거주 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구좌 개설 시 소득수준 등에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하다.

2) 기타

독일은 한국과 달리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곳이 많아 구좌 개설 시 EC카드(한국의 직불카드 개념)를 같이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인출 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회사나 집 주변의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하면 유리하다. 요즈음에는 은행 간 수수료 면제 등의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다.

사. 병원

1) 의료시스템

독일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서를 받아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병원은 한국과 같이 크게 개인병원(Praxis)과 종합병원으로 나뉘며 개인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원이용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한다(위급 시는 한국과 같이 119 응급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국과 같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구입한다).

3)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크게 특정 근로자 등이 의료 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과 법적 의무 가입자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이 있다.

공보험의 경우 AOK, Barmer Ersatzkasse, Bundesknappschaft 등이 있으며, 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보험의 경우 Gerling, Gothar, Inter 등이 대표적이며, 보험사마다 가격 차이가 많으므로 가입 전에 가격과 서비스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비즈니스 출장 시 병원 이용

단기 출장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보험사에서 보증하는 여행자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현지 병원에서 선 지불하고 귀국 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아. 보험의 종류 및 내용

1) 자동차 보험

- 한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중고차 인수 시에도 보험사에서 발행한 증명서(엽서형태)를 제시하여야 인수 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 사고 시 렌터카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집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 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개인 배상 책임 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 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

4)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 독일에서는 유리의 파손 시 수리, 교체 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5) 열쇠보험

-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거주자 및 입주자들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규제되어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6) 변호사 보험

-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을 드는 경우가 많다.

자. 기타 이주 정착 정보

1) 비품 구입

독일의 전기 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 드라이어 등)은 높은 전압으로 고장이 날 우려가 높다. 또한 TV와 비디오 레코더는 우리나라의 NTSC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전 제품은 가전 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터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즈음에는 독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수도 있다.

임대 주택의 경우 기본적인 가구(싱크대, 냉장고, 식기 세척기)를 제외한 가구는 전혀 비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등 또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구는 IKEA, MANN Mobilia 등 대형가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IKEA 및 MANN Mobilia 가구는 중저가이나 조립식이므로 구입 후 본인이 직접 집에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조립을 의뢰해야 한다. IKEA에서 조립가구를 구입하면 4~5년간 사용한 후 폐기하기가 용이하다. 고급가구는 별도의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조립가구의 3배 이상이며 배송기간이 2주에서 길게는 12주 정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 가벼운 공기구 및 집안에 필요한 집기는 Baumarkt나 대형 양판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생필품 구입

생필품은 IDEA, Tengelmann, Aldi, Schlecker, Fegro, Real, Lidl, Minimal 등의 체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공산품 가격은 모두 정찰제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물가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시내 대형 매장 외에는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Real, Metro, Fegro 등 Cash & Carry 대형 유통점에서는 일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이나 직불카드(EC Karte)를 사용해야 한다.

월요일~금요일은 저녁 8시 까지, 토요일은 6시 또는 8시까지 영업하며 일요일에는 대부분 문을 열지 않는다. 급한 경우에는 주유소 또는 공항 등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3) 한국 식품 구입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뮌헨 등은 주재원 및 교포가 많아 한국식품점이 다수 있으며 인스턴트 식품, 생선, 채소, 떡, 식품회사 가공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웬만한 식품은 거의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한국 2-3배이다.

4) 여가 활용

독일은 작은 지역이라도 스포츠 센터 등 여가 관련 시설이 잘 있다. 특히 골프장은 다수 산재해 있으며 요금은 18홀 기준으로 50 유로에서 80유로 선이다. 다만 핸디캡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등 이용이 까다로운 골프장이 많으며, 한국과는 달리 캐디서비스는 없다. 낚시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며 등산 시에도 식물의 채집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오페라나 음악회 등 문화관람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 대부분 독일어로 더빙되어 상영되며, 영어 극장이 있긴 하나 독일어 극장에 비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8.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독일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독일 서부는 전반적으로 북해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위도에 비해 온난 습윤하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대륙성으로 바뀐다. 따라서 동부에서도 대륙성 기후가 우세해 강수량도 적은 편이다.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7-10도 수준이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저지대는 섭씨 1.5도, 남쪽의 산악지대는 영하 6도이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섭씨 16-20도 사이이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덥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비와 안개가 많으며 여름철에는 건조하다. 평균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햇볕이 적어 여름철 휴가는 햇볕이 많은 곳을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평균기온은 다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독일 평균기온

(단위: °C)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9	-1.1	3.6	9.2	12.7	16.3	18.0	16.5	15.0	11.2	4.2	0.6
2006년	-2.6	-0.4	1.5	7.4	12.1	16.7	21.9	16.5	13.3	12.1	4.0	4.2

자료원: DWD(독일기상청)

나. 출장 시 추천복장

사계절이 한국과 비슷하므로 한국 기준으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외투와 우산을 준비해야 하며, 여름에도 8월 중순 이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 소매옷(점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독일은 16:00이다.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썸머타임을 실시하여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줄어든다.

나.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17:00가 많으나,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서 좀더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빨리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공서는 08:00-12:00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은행 개점시간은 08:30-13:00, 14:30-16:00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화요일, 목요일오후 18:00까지 개점하는 곳도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상점은 2003.6.1일부터 평일과 토요일 모두 08:00-20:00로 변경되었다. (기존 토요일 개점시간 08:00-16:00) 그러나 작은 상점은 폐점 시간보다 1-2시간 앞당겨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의 중앙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 상점, 그리고 주유소 간이 매장은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23시까지 영업을 하며, 대형 유통점의 경우에도 점점 개점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과점 역시 신선한 빵 제공을 위해 일요일 오전 영업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3. 도량형

가. 도량형

거리는 미터법, 무게는 kg을 사용하고 있다.

나. 전기규격

일반 가정 및 사무실은 230V, 50Hz를 사용하고 있다.

다. 시간 표시법

정오 이후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13시, 14시, 15시 등으로 표기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2005년 1월 발효된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 미만 관광목적으로 체류 시 비자 가 면제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혹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 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 청에서 담당한다. 별도의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취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비자발급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재원들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내 취업 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 국내 신청 시: 비자신청서, 호적등본, 여권, 사진 2매
- 독일 내 신청 시: 거주신고서 사본, 체류 허가 신청서, 여권, 사진 2매(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외국인청에 출두 신청)

2) 비자 발급처

- 독일에서 비자 신청 시: 각 거주지역의 외국인청
- 한국 내에서 신청할 시: 주한 독일 대사관
 - 주 소: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08-5
 - 전 화: 02-748-4114, 팩스: 02-748-4161
 - 휴 일: 토, 일요일, 독일 및 한국 공휴일
 - 업무시간: 월-목 09:00-12:00, 금 08:30-11:30
 - 소요일수: 6-8주
 - 소요비용: 30,000원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 입국심사-세관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며, 입국 심사 시 EU와 비EU국을 구분하여 여권을 검사한다. 짐 검사는 신고할 물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하여 검사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보통 검사 없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에 따른 예방접종은 필요 없다. 최근 전시회 개최 시 전시품을 핸드캐리 하는 참가업체가 많아 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검색도 심해지기도 한다. 특히 주의사항은 담배에 대한 통관 시 검사가 철저하여, 1보루 이상 소지 시 관세 대상임을 주지하기 바람.

(자료원: 주한 독일 대사관, 무역관 보유 자료)

5. 환전

화폐단위는 유로 (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 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 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주화에는 1, 2 유로 및 1, 2, 5, 10, 50 센트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 2. 28까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마르크화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독일 연방은행이나 주정부은행에서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미국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환전 시 환전수수료가 매우 비싸 미리 유로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06년 기준 1 유로당 달러 평균환율은 1.2556 이다.

환전은 공항, 기차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정식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에서는 100불 이상의 고액권에 대해서는 환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에서 유리하다.

((자료원: 독일 연방은행(www.bundesbank.de), 무역관 자체조사))

6. 교통/통신

가. 교통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서울 - 프랑크푸르트 노선

서울 - 프랑크푸르트간 대한항공이 주 7회, 아시아나 항공이 주 2회, Lufthansa가 주7회 Non-Stop 직항로로 각각 운항되고 있다.

○ Frankfurt → 인천

기 편	일 시	출발요일	도착시간(익일)
LH 712	18:00	매일	12:35+1
KE 906	19:20	매일	13:35+1
OZ 542	18:00	월, 수, 금, 일	12:15+1
OZ 542	18:30	화, 목, 토	12:45+1

주: 각 공항별 2007년 겨울 스케줄(2007년 12월 기준)

○ 인천 → Frankfurt

기 편	일 시	출발요일	출발시간(당일)
LH 713	18:25	매일	14:35
KE 905	17:05	매일	13:25
OZ 541	16:55	화, 목	12:40

주: 각 공항별 2007년 겨울 스케줄(2007년 12월 기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면 동 공항에서 독일 각지로 항공편, 기차편으로 각각 연결되며 대한항공은 Frankfurt 공항 제2청사 착발, 아시아나 항공과 Lufthansa는 Frankfurt 공항 제1청사에서 착발한다. 이 외에도 독일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리, 암스테르담 등 제3국을 경유하게 되며, 시간은 약 5~6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주요 직항 및 3국 경유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	연락처 (한국 내)	홈페이지
Korean Airlines 대한 항공	032-742-2620	www.kr.koreanair.com
Asiana Airlines 아시아나 항공	032-744-2132~3	www.flyasiana.com
Lufthansa 루프트한자 항공	032-744-3400	www.lufthansa.com
KLM 네덜란드 항공	032-744-6700~1	www.klm.co.k
Air France 프랑스 항공	02-3483 1033	www.airfrance.co.kr

□ 서울/부산 - 뮌헨 직항 노선 신설

루프트한자는 2008년 여름 운항 스케줄부터 기존의 인천-프랑크푸르트 직항 노선을 매일 운항하게 되며, 부산-인천-뮌헨 노선을 주3회 운항에 이어, 인천-뮌헨 노선을 주3회 증편함으로써 총 주 13회에 이르는 유럽행 항공편을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이 부산발 직항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뮌헨에 도착한다).

항공편	경로	출발	도착	운항일
LH719	부산 - 뮌헨	21:40	05:30	월
		11:15	18:20	화/ 금/ 일
	인천 - 뮌헨	01:20	05:30	월
		14:10	18:20	화/ 금/ 일
LH718	뮌헨 - 인천	11:50	6:35 (+1)	월/목/토
		12:00	6:35 (+1)	월
	뮌헨 - 부산	11:50	8:40	월/목/토
		12:00	8:40	월

주: 각 공항별 2007년 겨울 스케줄(2007년 12월 기준)

2) 국내교통

□ 철도

독일의 각 도시가 95년 민영화된 연방철도 주식회사 (DB AG)의 철도로 연결된다. ICE, IC 등이 주요도시를 운행하며, 철도요금은 한국의 약 3~4배이다. 만원인 경우가 전무하며, 언제나 즉시 구입이 가능하며, 좌석표가 아니다. 좌석은 별도로 예약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렴한 주말 티켓(Schoenes Wochenende Ticket) 한 장으로 저렴하게 준급행급 이하의 모든 열차 (RE, RB, SE, S)를 단독 또는 공동(최고 5명까지)으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은 27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 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이다.

가격은 인터넷 또는 티켓 자판기에서 구입할 경우 한 장에 30유로이며, 역전 창구에서 구입할 경우 32유로이다. 때에 따라 기차 안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30유로 플러스10% =33유로), 최근 들어 많은 지역에서 기차 내에서 탑승권 구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지역의 경우 기차표 없이 탑승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기차표를 미리 구입(적어도 3일전에는 구입해야 함)거나 Surf & Rail 등 인터넷으로 예매할 경우 기차표가 25%~50%까지도 할인된다.

□ 자동차

독일은 전체구간의 약 50%가 속도제한 없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통해 각 지역이 연결되며, 1일 약 150~200유로로 2,000cc급 자동차를 보험료를 포함하여 렌트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오면 되며,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렌트가 가능하다.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비가 없다.

□ 택시

택시는 기차역 앞 등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콜택시이므로 전화로 주문해야 한다. 이외에 도시 여기저기 택시 대기 구역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있는 택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요금은 2 유로부터 3.80유로까지 차이가 있으며 거리에 시간을 더한 병산제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항에서 시내중심지까지 약 30유로가 나온다. 승차정원은 4명이고, 팁을 줄 경우, 약 50센트 정도, 짐을 택시 트렁크에 실은 경우 약 1유로 정도 지불하면 된다. 영수증은 요구 시 발급해 준다.

주요 도시 콜택시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베를린	(030) 21 01 01
프랑크푸르트	(069) 73 30 30
함부르크	(040) 604 7001
뮌헨	(089) 21610 / (089) 19410
뒤셀도르프	(0211) 21 21 21

나. 통신

1) 국제통신

한국으로 국제 전화하려면 국제전화 코드인 00을 돌린 후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번호를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3460-7141을 걸 경우 00-82-2-3460-7141) 한편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도 가능한 바, 이 경우에는 0130 800 082를 돌리면 한국의 교환이 직접 나와 전화를 연결해 준다.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므로 한국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최근 인터넷전화로 1분당 10~15센트로 저렴한 번호(예: 01081, 01051)등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공중전화나 핸드폰으로는 불가능) # 사용법 01081+0082(한국)+2(서울)+3460+7114(KOTRA)

2) 국내통신

시내 한 통화에 20센트이며, 전화를 거는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 호텔에서 전화할 경우 다소 비싼 편이며, 동전 전화기보다는 카드전화기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화카드를 구입, 사용하면 편리하다. 전화카드는 우체국 및 가판대, 담배가게에서 구입 가능하며, 20, 30, 50유로짜리 전화카드가 있다. 최근 핸드폰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나, 공항, 주요 역, 대형유통점 등에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다.

다. 우편

1) 국내

□ 편지

(단위: 유로)

구 분	가 격
우편엽서	0.45
일반 규격 편지(최대 무게: 20g) 최소 크기: 140mm x 90 mm/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5mm	0.55
중간 규격 편지(가능 무게: 21g ~ 50g) 최소 크기: 100mm x 70mm/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10mm	0.90
대형 규격 편지 최소 크기: 100mm x 70mm/최대 크기: 353mm x 250mm x 20mm 무게: 50g 이하(50g< ~ 2000g)	1.45 2.20

□ 소포

독일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일반적으로 20kg이다. 보내는 소포가 직육면체일 경우 최소 크기는 15cm x 11cm x 1cm이며 최대 크기는 120cm x 60cm x 60cm 이다. 원통 모양일 경우 최대 무게 5kg, 최소 규격 길이 15cm, 지름 5cm이며 최대 규격은 길이 150cm에 지름은 15cm이다.

무 게	가 격
5kg 이하	7.00 유로
5kg< ~ 10kg이하	10.50 유로
10kg< ~ 20kg 이하	14.00 유로

2) 국제

□ 편지

(단위: 유로)

구 분	유럽	유럽을 제외한 국제 육로 편지	유럽을 제외한 국제 항공편 편지
우편엽서	0.65	1.00	1.00
일반 규격 편지(최대 무게: 20g) 최소 크기: 140mm x 90 mm 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5mm	0.70	1.70	1.70
중간 규격 편지(가능 무게: 21g ~ 50g) 최소 크기: 100mm x 70mm 최대 크기> 235mm x 125mm x 10mm	1.00	2.00	2.00
대형 규격 편지 최소 크기: 100mm x 70mm 최대 크기: 353mm x 250mm x 20mm 무게: 50g 이하	1.90	3.00	3.00
50g< ~ 100g이하	2.50	4.00	4.00
100g< ~ 500g이하	4.50	6.00	8.00
500g< ~ 1000g이하	6.00	8.00	12.00
1000g< ~ 2000g이하	14.00	14.00	28.00

2) 소포

국제 소포에 대한 무게 및 규격 규정은 국내 소포와 동일하다.

(단위: 유로)

무게	지역별 가격			
	1	2	3	4
5kg 이하	17.00	30.00	32.00	37.00
5kg< ~ 10kg이하	22.00	35.00	42.00	52.00
10kg< ~ 20kg이하	32.00	45.00	62.00	82.00

주: * 지역1은 EU 및 스위스, 지역 2는 나머지 유럽 국가, 지역3은 북미, 북아프리카, 근동, 지역 4는 나머지 국가 (한국은 지역 4에 속함)

라. 특사 운송회사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DHL	01805-3452255	www.dhl.de
UPS	0800-8826630	www.ups.de
FedEx	0800-123 0800	www.fedex.com

주: 위 전화번호는 독일 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독일 어디서나 연락하면 보내려는 문서나 소포를 받으러 온다. 단지 때에 따라서 1~4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장 가까운 있는 지점을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그곳에 가서 보낼 수도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7. 호텔/식당

가. 호텔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으로는 Deutsche Zentrale fuer Tourismus(Beethoven str. 69, 60325 Frankfurt, Tel: +49-(0)69-75720, Fax: +49-(0)69-751056)가 있고, 각 자치단체 단위의 관광청(Verkehrsamt)에서도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www.hrs.de(Hotel Reservation System) 및 www.hotel.de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독일 내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전시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독일 대부분의 호텔은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는 일반 요금의 약 2~4배 비싼 금액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예약 또한 조기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 바, 출장 계획 수립 시에 출장 지역의 주요 전시회 개최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럽 호텔의 경우에는 칫솔, 치약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호텔이 대다수인 바 출장 및 여행 준비물로 개인 세면도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트윈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매트리스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5성급 호텔

- 싱글 150-200 유로,
- 트윈/더블 200-300 유로

지역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Steigenberger Frankfurter Hof	Am Kaiserplatz	069-21502
	Intercontinental	Wilhelm-Leuschner-Str. 43	069-26050
	Arabella Sheraton Grand	Konrad-Adenauer	069-29810
	Hilton Frankfurt	Hochstrasse 4	069-1338000
	Sheraton Frankfurt	Hugo-Eckener-Ring 15	069-69770
베를린	Adlon Kempinski Berlin	Unter den Linden 77	2261-1110
	The Regent Berlin	Charlottenstr. 49	030-20 33 8
	Grand Hotel Esplanade	Loetzowufer 15	030-25478 0
	Grand Hyatt Berlin	Marlene-Dietrich-Pl.2	030-25531234
	Hotel Palace Berlin	Budapest Str 45	030-25020
	Kempinski Hotel Bristol	Kurfuestendamm 27	030-8843 40
	Inter-Continental	Budapester Str. 2	030-2602 0
원헨	Continental	Max-Joseph-Str. 5	089-551570
함부르크	Vier Jahreszeiten	Neuer Jungfernstieg 9	040-34943181
	Elysee Hotel Hamburg	Rothenbaumchaussee 10	040-41412-0
	Sofitel Hamburg Alter Wall	Alter Wall 40	040-369500
	Europaeischer Hof	Kirchenallee 45	040-248248
	InterContinental	Fontenay 10	040-41420

○ 4성급 호텔

- 싱글 100-150 유로
- 트윈/더블 140-190 유로

지역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Maritim	Theodor-Heuss-Allee 3	069-7578-0
	Moevenpick	Den Haager Str. 5	069-788-0750
베를린	Schweizer Hof	Budapester Str. 25	030-2696 0
	Alsterhof Berlin	Augsburger Str. 5	030-212420
원헨	Bayerischer Hof	Promenadeplatz 2-6	089-21200
	Mercure Muenchen-Orbis	Karl-Marx-Ring 87	089-390550
	Admiral	Kohlstrasse 9	089-216350
함부르크	Madison Residenz	Schaarsteinweg 4	040-376660
	Hotel Hafen Hamburg	Seewartenstr. 9	040-3111-30
	Holiday inn Crowne Plaza	Leopoldstrasse 194	089-381790

○ 3성급 호텔

- 싱글 70-90 유로
- 트윈/더블 90- 130 유로

지역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Excelsior	Mannheimer Str. 7-9	069-2560801
	Intercity	Poststrasse 8	069-273910
	Mercator	Mercator Str. 38	069-9434070
	Monopol	Mannheimer Str. 11-13	069-227370
베를린	Ambassador	Bayreuther Str. 42	030-2190 20
원헨	Vier Jahreszeiten	Maxmilianstr.	089-21250
	Excelsior	Schuetzenstr. 11	089-551370
함부르크	Continental Hotel	Kirchenallee 37	040-284430
	Ambassador Hotel	Heidenkampsweg 34	040-2388230
	Hotel Berlin	Borgfelderstr. 1-9	040-251640

나. 식당

유럽의 타 국가에 비해 독일 음식은 매우 단순하고 조리법 또한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및 이태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많은 음식점이 있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요즈음에는 일본 음식을 중심으로 동양식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다. 한식의 경우 아직 일본 음식만큼 대중화되지는 못 하였으나 주재원들이 많은 프랑크푸르트 등에는 한국음식점이 다수 있으며 값 또한 타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한식당
 - 점심 10유로~12유로
 - 저녁 메뉴 별로 12~30유로

지역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Mr. Lee(Mr. Lee)	Gutleutstr. 153, Frankfurt	069-251198
	고궁(Go Gung)	Hauptstr. 28, Eschborn	06196-775100
	신라 (Shilla)	Kennedyallee 61, Frankfurt	069-636520
	아리랑(Arirang)	Muenchenerstr. 46, Frankfurt	069-24271778
	불고기(Bulgogi)	Dreikoenigstr. 4, Frankfurt	069-66126678
베를린	김치식당(Kim Chi)	Ku'damm 134, Berlin	030-8812121
	서울관(Seoul kwan)	Schmiljanstr 25, Berlin	030-8526262
	한일관(Hanil Kwan)	Schmiljanstr. 25, Berlin	030-8526262
	호도리 (Hodori)	Beusselstr. 26, Berlin	030-396 2836
	서울(Seoul)	bamberger Str. 49, Berlin	030-213-4940
뮌헨	한국관(Korea)	Leopoldstr. 120, Muenchen	089-348104
함부르크	김치식당	Emilienstr. 22, Hamburg	040-493871
	복식당	Schulterblatt 3, Hamburg	040-4306781

- 독일, 양식: 점심 8유로~13유로, 저녁 메뉴 별로 15~30유로

지역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Weinstube im Roemer	Roemerberg 19, Frankfurt	069-291331
	Sèvres(Hessischer Hof)	Friedrich-Ebert-Anlage 40, Frankfurt	069-75402927
	Gargantua	Liebigstrasse 47, Frankfurt	069-720717
	Humperdinck	Grueneburgweg 95, Frankfurt	069-97203154
	Maingau	Schifferstr. 38, Frankfurt	069-609140
	Tigerpalast-Restaurant	Heiligkreuzgasse 16-20, FfM	069-92002225
	Weinhaus Brueckenkeller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069-2980070
	Apfelwein Klaus	Meissengasse 10, Frankfurt	069-282864
	1a-Bavaria	Bockenheimer Anlage 1a	069 - 95507390
	Mosebach	Sandweg 29	069 - 4930396
뒤셀도르프	An'ne Bell	Kaistrasse 16 a, Duesseldorf	0211-3006750
	Savini	Hafen-Stromstrasse 47, D'dorf	0211-393931
	VAU	Kaistrasse 16 a, Duesseldorf	0211-3006750
	An'ne Bell	Hafen-Stromstrasse 47, D'dorf	0211-393931
베를린	Alt Luxemburg	Windscheidstrasse 31, Berlin	030-3238730
	Bamberger Reiter	Regensburger Strasse 7, Berlin	030-21966355
	Dressler	Unter den Linden 39, Berlin	030-2044422
	Alt Nuernberg	Europa Center, Berlin	030-2641397
	Georgenbraeu	Spreeufer 4, Berlin	030-2424244

	Schloss Glienicke-Remise	Jaegerstr asse 54-55, Berlin	030-2029730
	TirolerBauernstuben	Heerstraße 137	030-30 09 94 66
	Gaffel Haus Berlin	Taubenstraße 26	030-31 01 16 93
원헨	Savini	Muehlbaurstr. 36, Muenchen	089-4704848
	Acquarello	Promenadeplatz 2-6, Muenchen	089-2120993
	Bayerischer Hof	Amalienstr. 89, Muenchen	089-2120-0
	Bistro Terrine	Ismaniger Str. 85, Muenchen	089-281780
	Bogenhauser Hof	ISMANINGER STRASSE 85	089-98 55 86
	Gasthaus Glockenbach	Kapuzinerstraße 29	089 53 4043
	Halali	Karlsplatz 25, Muenchen	089-551360
	Koenigshof	Rablstr. 10, Muenchen	089-4484477
	Massimiliano	Am Tucherpark 7, Muenchen	089-38450
	Muenchen Park Hilton	Am Tucherpark 7	089-38450
	Augustiner am Dante	Dantestr. 16	089-15919870
함부르크	Anno 1905	Holstenplatz 17, Hamburg	040 4392535
	Friesenkeller	Neuer Wall 9	040 35760610
	Landhaus Dill	Elbchaussee 94	040 390 50 77

- 이탈리아 식당:
 - 점심 8유로~13유로,
 - 저녁 메뉴 별로 13~30유로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Collosseo	Mörfelder Landstr. 122, Frankfurt	069-614386
	Garibaldi	Kleine Hochstrasse 4, Frankfurt	069-21997644
	Villa Leonhardi	Zepplinallee 18, Frankfurt	069-7898847
베를린	Ana e Bruno	Sophie-Charlotten-Str. 101, Berlin	030-3257110
	Trenta Sei	Mark-Graffenstr. 36, Berlin	030-20452630
	Schell	Knesebeck Str. 22, Berlin	030-3128310
	Via Condotti	Fasanenstr. 73, Berlin	030-88677897
원헨	Galleria	Sparkassenstr. 2, Muenchen	089-297995
함부르크	LA VITE	Heimhuderstr. 5, Hamburg	040-458401
	Ristorante Palazzo	Rothenbaumchaussee185, Hamburg	040-4102277
	Antica Roma	Wandsbeker Königstraße 15	040 881 556 94

- 기타
 - 일식 및 중식의 경우 한국의 2~3배 선이며, 그리스 식당 등은 이탈리아 식당과 비슷한 수준이다.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Parthenon(그리스)	Kennedyallee 34	069 63 54 19
	Sushi am Main(일식)	Feuerbachstraße 1	069-72 84 795
	SUSHIMOTO(일식)	Konrad-Adenauer str. 7, D-60313	069-1310057
	San San(중식)	Konrad-Adenauer str. 7, D-60313	069-91399050
뒤셀도르프	ManThei sushibar(일식)	Bachstrasse 1	0211-93379989
	Sila Thai Restaurant & Cocktail(타이)	Bahnstraße 76	0211-860 44 27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8. 관공서 관행

가. 민원 처리기간

독일은 관공서 별로 민원 서류 처리기간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운전 면허증, 체류 허가증 등 단순 서류의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청 및 노동청의 협조가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의 경우에는 최소 4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 처리를 하는 곳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면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인터넷을 통한 신속 처리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독일 모든 관공서의 업무 처리는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있어 예외 적용 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은 오히려 업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담당자 또는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일 경우, 업무 처리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 관공서 근무시간

독일 관공서는 대민 업무를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근무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민원 업무 시간은 지역별로, 관공서 별로 차이가 있는 바 해당 관공서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9. 공휴일

가. 2007년도 공휴일 및 축제일

독일은 신년(Neujahr) 등 7개 공휴일의 경우에는 독일 전체가 휴일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16개 연방 주 별로 상이하여 거주하는 주에 따라 공휴일 일수 및 일자가 다르다.

특히 종교가 관련된 국경일 및 기념일이 많고, 천주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남부 지방은 휴일 수가 많고, 개신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북부 지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휴일 수가 적다.

○ 2007년도 독일 주 별 공휴일 및 축제일

월	일	공휴일명	공휴일명 (독어)	대상지역 (주 별)
1	1	신년	Neujahr	독일 전역
1	6	주현절	Heilige Drei Koenige	Baden-Wuerttemberg, Bayern, Sachsen-Anhalt
3	21-24	부활절 휴일	Karfreitag, Ostern	독일 전역
5	1	노동절 예수승천일	Maifeiertag, Christi Himmelfahrt	독일 전역
	28	성령강림절	Pfingsten	독일 전역
6	7	성체축일	Fronleichnam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 Thueringen
8	15	성모승천일	Maria Himmelfahrt	Bayern, Saarland
10	3	통일기념일	Tag der Deutschen Einheit	독일 전역
10	31	종교개혁일	Reformationstag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ueringen
11	1	만성절	Allerheiligen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11	21	속죄의 날	Buss- und Betttag	Sachsen
12	25-26	성탄절	Weihnachten	독일 전역

주: 부활절,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성체축일은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주현절, 성모승천일, 종교개혁일, 만성절은 주 별 축제일이다.

나. 출장지양 기간

독일인들 휴가를 매우 중시한다. 또한 여행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휴가 시즌에는 2주 이상 장기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이 휴가 시즌으로는 부활절 휴가 시즌(4월 초), 여름 휴가 시즌(7월 중순 ~ 8월 중순), 연말 휴가 시즌(12월 중순 ~ 1월 중순)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장기 휴가로 인하여 많은 관공서, 은행 및 기업들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와의 미팅 약속이 매우 어렵다. 또한 휴가 중 업무상 연락을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에는 상기 휴가 시즌을 고려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0.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독일과 한국은 양국간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단기 관광 목적의 경우에는 3개월간 비자가 불필요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가 자주 내리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를 유의해 긴 옷(점퍼)과 작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형 전자 제품의 경우 독일은 230V, 50Hz가 기준이지만 한국산 제품(60Hz)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나. 여행 여건

독일 전국에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안내소 (Touristeninformationsbüro)가 있어 여행지도 및 관광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교통 및 기타 편의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앙역 (Hauptbahnhof)의 안내소 (Information)를 이용하면 호텔, 식당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편리 하다.

독일의 수돗물은 석회성분이 많아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시중에서 파는 미네랄워터(Mineralwasser)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다. 위험지역

독일의 치안상태는 유럽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등의 공항이나 역 주변은 소매치기 피해가 많은 편이며, 단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및 식당에서의 소지품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보면 프랑크푸르트에는 금융가와 중앙역(Hauptbahnhof) 사이에 유혈가가 있으며, 국가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무료 주사기와 마약을 공급해 주는 치료소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구권, 터키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유혈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이 근처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함부르크 중앙역(Hauptbahnhof) 주변이나 유혈가인 레퍼반(Reeperbahn) 등에 늦은 시간 혼자 머무를 때는 주의하여야 하며, 너무 호의적인 사람이 접근할 때에는 우선 의심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 실내복장으로 거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한다.

원헨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도시로 위험 지역으로 특별히 알려진 곳이 없다. 도시 변두리 깊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에서 관광 및 비즈니스를 한다면 위험하지 않다.

동독지역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여행하기에 좋지 않은 지역이다. 서독 지역은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무관심한 반면 동독 지역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특히 나치 추종자들이 많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테러 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련 폭행 사건 등이 지식, 주거 수준이 낮은 외국 노동자들에게 자주 일어난다. 가급적 외출 시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다. 지식인 또는 비즈니스맨처럼 보일 경우 대체로 독일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라. 팁 제도

독일에서는 식당, 호텔, 택시, 미장원 등 서비스분야에 팁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식당의 경우 가게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총 가격의 5~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며, 호텔의 경우에는 1유로, 택시의 경우에는 요금의 5%정도를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맥도날드 같은 음식점의 경우 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의 경우 팁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 기타 유의사항

- 독일은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로, 독일 바이어와 미팅 시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의 친분이 쌓여 자연스럽게 역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히틀러” 또는 “유대인 학살(Holocaust)” 과 관련된 농담이나 찬사는 금물이다.
-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독일의 문화이다. 독일인들은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분위기의 비즈니스 상담 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농담은 하지 않도록 한다.
- 친구 사이가 아닐 경우 결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독일 바이어의 성 앞에 Herr 또는 Frau(Mr./Ms.)를 붙이는 것이 예의이며,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뒤에 직함을 반드시 넣어주도록 한다.
- 모든 유럽 문화에서 그렇듯이 독일에서도 식사 예절을 매우 중시한다. 식사 때 트림을 하거나 씹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방문 시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일요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및 상점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1. 유용한 연락처

가. 독일 주재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Mainzer Landstr. 27-31, 60329 Frankfurt a/M	069-2429920
뮌헨무역관	Tal 12, 80331 Muenchen	089-24242630
함부르크무역관	Ludwig-Erhard-Str.20, 20459 Hamburg	040-3405740
한국관광공사	Baseler Str. 35-37, 60329 Frankfurt	069-233226
대한항공	Airport Frankfurt, Bldg. 152, Room 4114	069-69764650
아시아나 항공	An der Hauptwache 2, 60313 Frankfurt	069-92101920
중소기업진흥공단	Ludwig-Erherdstr.30, 65760 Eschborn/Ts	06196-95820

나. 한인단체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재독한국경제인협회	069-24299220	www.kobag.de
재독한인연합회	06171-923950	www.jaedokhanin.de
재독한인세계상공인 총연합회	0201-369187	www.hansang.de
교포신문	02064-97269	www.kyoposhinmun.de
우리신문	069-58707767	www.urishinmun.de

다. 콜택시

지 역	전화번호
대표번호(지역에 관계없이)	22456
베를린	(030)-210101
프랑크푸르트	(069)-733030 / (069)-777732
원헨	(089)-21610 / (089)-19410
함부르크	(040)-44 10 11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AUMA 박람회 위원회	030-240000	www.auma.de
BDI 독일공업협회	0221-370800	www.bdi-online.de
BGA 도매 및 무역업협회	0228-260040	www.bga.de
DGB 독일노조연맹	0221-43010	www.dgb.de
DIHT 독일상공회의소	0228-1040	www.diht.de
DIN 독일규격원	030-26010	www.din.de
Gesamttextil 섬유공업협회	06196-9660	www.gesamttextil.de
HDE 독일소매업협회	0221-9365502	www.einzelhandel.de
VDA 독일자동차공업협회	089-570070	www.vda.de
VDE 독일전기규격협회	069-630330	www.vde.de
VDMA 독일기계공업협회	069-66030	www.vdma.de
ZHD 독일수공업협회	0228-5450	www.zhd.de
ZVEI 독일전기전자공업협회	069-63020	www.zvei.de

마. 현지 은행 (본사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Deutsche Bundesbank	069-95661	www.bundesbank.de
Hessische Landesbank	069-913201	www.helaba.de
Landesbank Stuttgart	0711-1240	www.igbank.de
Nord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0511-3601	www.nlb.de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0211-82601	www.wlb.d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069-744701	www.dgbank.de
Commerzbank AG	069-13621	www.commerzbank.de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069-74310	www.kfw.de

바. 비상연락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Stuelerstr. 8-10, 10787 Berlin	030-260650
주독일 대사관 본 분관	Mittelstr. 43, 53175 Bonn	0228-94379-0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069-9567520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해외사건, 사고 신고 및 상담	00-800-2100-0404
독일 경찰서	응급 상황	110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2. 기타 유용한 정보

가. 주요 쇼핑 센터

독일은 쇼핑이 아주 발달한 지역은 아니나 대부분의 상점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소액의 경우도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등 관광객이나 출장자들이 쇼핑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또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일부는 호텔과 직접 연결되어 단기방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 프랑크푸르트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Galeria Kaufhof(백화점)	Zeil 116-126, 60313 Frankfurt	069-21910	월- 수: 9:30~20:00 목- 토: 9:30~21:00
Zeilgalerie(패션)	Zeil 112-114, 603 13 Frankfurtam Main	069-9207340	월- 토: 10:00~20:00
명품거리	Goethestr	-	월- 토: 10:00~18:00

□ 함부르크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Hanse Viertel(쇼핑센터)	Grosse Bleichen과 Poststrasse 사이	-	월- 토: 10:00~20:00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Arkaden 쇼핑센터가 있음)
Alstertal-Einkaufszentrum	Heegbarg 31, 22391 Hamburg	040-6116770	월- 토: 10:00~20:00
Alsterhaus(백화점)	Jungfernstieg 16-20, 20354 Hamburg	040-359010	월- 토: 10:00~20:00

□ 뮌헨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Fuenf Hoefe (쇼핑몰)	Theatinerstr., Maffeistr., Kardinal Faulhaber str. 와 Salvatorstr. 사이의 파사주와 호프	-	월- 토: 10:00~20:00
Schrannehalle	Viktualienmakrt 15, 80331 Muenchen	089-51818 18	연중24시간 열려있으나 내부 상점은 기타 상점 영업시간과 같음(쇼핑하면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명품거리	Maximilianstr.	-	월- 토: 10:00~20:00

□ 베를린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KADEWE 백화점 (Kaufhaus des Westens)	Taentzienstr. 21-24, 10789 Berlin	030-21210	월- 금: 10:00~20:00 토요일: 9:30~20:00 베를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
Arkaden am Potsdamer Platz	Potsdamer Platz	-	월- 토: 10:00~20:00
B5 Designer Outlet Center	Alter Spandauer Weg 1, 14641 Wustermark(베를린근교)	033234-9040	월- 토: 10:00~19:00 12월24~31일: 10:00~14:00 Aigner, Alba Moda, Doce & Gabbana 등 각종 디자이너 아울렛 매장)
Galeries Lafayette	Friedrichstr. 76-78(Ecke e Franzoesische Str.), 10117 Berlin	030-209480	월- 토: 10:00~20:00
명품거리	Kuerfuerstendamm	-	월-토: 10:00~20:00

나. 특산물

1) 맥주와 와인

독일에는 약 1364개의 맥주 양조장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맥주 상표는 50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고, 알디 등 식품 디스카운터들이 OEM으로 생산하는 무명 브랜드 종류도 있다.

맥주뿐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 및 아이스 와인의 경우에는 세계 최상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과거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영국 왕실에서 우선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고 품질의 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2) 소시지

독일에는 1,300종류가 넘는 소시지가 있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의 Frankfurter Wurst, 뉘른베르크의 Nuernberger 등과 같이 지역별로 특성있는 소시지가 생산되고 있다.

3) 초콜릿과 젤리

스위스 못지않게 Sarotto, Milka 등 독일 초콜릿도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Gummibaerchen (곰 모양의 젤리)도 유명한데, Haribo 가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4) 유명 브랜드

- Zwillinge(쌍둥이 칼), Fissler(압력 밥솥), WMF(스푼, 포크, 압력 밥솥 등) 그리고 Meissen (자기 그릇) 등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엌용 제품의 독일 브랜드이다,
- 여성 의류 및 가방 브랜드로 Aigner, 남성의 경우 Boss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s'Oliver, Esprit, Mexx, Gery Weber 등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다.
- 가전 및 전자 제품으로 Bosch, Miele, Braun, Siemens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13. 관광명소

가. 개요

3개월까지는 비자가 따로 필요없고 특별한 입국절차도 없기 때문에 방문하기 편리하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및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있으며 괴테 하우스 등 인물에 유래된 관광지도 볼 수 있다.

독일 관광청에서는 로맨틱 가도, 고성 가도 등의 가도를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독일 특성에 맞게 관광객에게 테마 여행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옥토버 페스트 등 여러 축제도 유명하다.

나. 주요 관광도시

- 베를린
 - 독일의 수도이다. 1894년 건축된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2차 대전 시 파괴되어 폐허만 남은 채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 내 제국 의회 의사당(Reichstag), 전승 기념탑, 6월17일 거리, 샤를텐부르크 궁전 등도 구경할 만하다.
 - 그 외 브란덴부르크 문, 쿠담 거리가 관광 명소이다.
 - 인근 포츠담 지역에는 체칠리엔호프 궁전과 썬수시 궁전이 유명하다.
- 프랑크푸르트
 - 독일의 맨하튼이라 할 수 있는,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다. 시내 중심가에는 1749년 괴테가 태어난 생가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완성된 교회로 1948년 독일의 1회 의회를 개최한 파울교회가 역시 시내에 있다. 뢰머 광장에 자리잡은 구 시청건물과 13세기 건축되어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거행되던 카이저 돔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시내 중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중앙위병초소는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이다.
 - 하이델베르크 성이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거리, 로렐라이가 1시간 20분 정도 거리로 하루 여행코스가 가능하다.
- 함부르크
 - 베를린(347만 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171만 명)가 많은 독일 제2의 도시이자 독일 최대 무역항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시청 청사, 성미하엘 교회, 알스터 호수가 있다. 시청 청사는 탑 높이가 112미터나 되는 네오 르네상스식 대 건축물이며, 성 미하엘 교회는 18 세기 중반 건축된 바로크 풍의 교회로서 132미터 전망대가 있다.
 - 알스터 호수는 450 에이커의 인공호수로 Jungfernstieg는 쇼핑,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 뮌헨
 - 독일 제3의 도시로서 맥주와 예술의 도시이다. 1488년 완공된 프라우엔 교회는 높이 99m의 탑 2개가 있으며 뮌헨의 상징적 교회이다. 마리엔 광장과 신 시청은 금빛 성모상과 오전 11시, 12시에 움직이는 인형이 있는 Glockenspiel 시계로 유명하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한 님펜부르크 성은 시내 서북쪽 5km에 위치하며 바이에른가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 시청부근 Hofbraeuhaus(궁중 맥주 주조창)은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며, 히틀러가 회동 장소로 이용했다는 술집으로도 유명하다.
- 하이델베르크
 - 관광 도시이자 교육 도시이다. 독일 낭만파 시인들이 사랑하던 도시로서 고딕 양식부터 바로크 양식까지 다양한 건물이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에는 성 지하에 큰 포도주 통과 약사 박물관(Apotheken-museum)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 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3만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생 감옥으로도 유명하다. 그 외 구 시가지의 Hauptstrasse를 중심으로 한 성령 교회, 기사의 집, 시청 등이 명소이다.

다. 기타

- 라인강
 -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하여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을 관류하여, 북해로 흘러 든다. 본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거치며, 운하에 의해서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과 연결된다. 그 중 독일을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어, 독일의 상징이라고 한다.
 - 독일 빙겐 지방의 북서쪽 협곡 부분을 중부라인이라고 하며, 특히 빙겐과 코블렌츠와의 사이 는 자연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계속 이어지는 고성(古城)과 포도원을 비롯하여 하이네의 시로 유명한 로렐라이 바위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코스이다.
 - 라인강은 이른바 국제하천으로서 1868년 항행의 자유가 선언되었고, 본류, 지류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다.
- 온천
 - 비스바덴, 바덴바덴 등의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온천이 발달되어 있다. 이전부터 온천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하여 독일의 온천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축제 및 박람회
 - 옥토버 페스트: 매년 9월 셋째 토요일 정오에서 16일간 뮌헨에서 개최되는 10월 축제(Oktoberfest)에는 전세계 약 6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려드는 유명한 축제이다.
 - 라인강 불꽃 축제(Rhine in Flames): 5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본의 라인강변에서 열린다. 지상뿐 아니라 선박에서도 불꽃을 쏘아 올려 장관을 연출한다.
 - 뉘른 베르그 락 축제(Rock am Ring): 1985년 최초로 개최. 당초 1회성 행사로 기획 되었으나 엄청난 인기로 인해 연중 행사가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락 축제로 매년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식기 도구 등만을 가지고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